

한국 YWCA 후원콘서트 '동행'



일시 2018년 10월 16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서울 정동)



예매문의
 02)774-9702~7
www.ywca.or.kr

티켓 안내
 프리미엄석 100,000원
 R석 50,000원 | A석 30,000원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사천 055.833.2344	인천 032.424.0524
거제 055.682.4950	서귀포 064.762.1400	전주 063.224.5501
경주 054.772.8141	서울 02.3705.6000	제주 064.711.8322
고양 031.919.4040	서천 041.951.6400	제천 043.645.2580
광명 02.895.1966	성남 031.708.2503	진주 055.755.3463
광양 061.762.0012	세종 044.865.2432	진해 055.542.0020
광주 062.609.1300	속초 033.635.3523	창원 055.283.9488
김해 055.332.6000	수원 031.252.5111	천안 041.575.0961
남양주 031.577.7762	순천 061.744.7990	청주 043.265.3700
남원 063.632.7002	안동 054.854.5481	춘천 033.254.4878
논산 041.736.7393	안산 031.483.6536	충주 043.848.3240
대구 053.652.0070	안양 031.455.2700	통영 055.646.2547
대전 042.254.3035	양산 055.367.1144	파주 031.945.5998
동해 033.531.3007	여수 061.654.2161	평택 031.651.7701
마산 055.246.8746	울산 052.247.3520	포항 054.274.4444
목포 061.242.1611	원주 033.742.6090	하남 031.793.7771
부산 051.441.2221	의정부 031.853.6332	관악지역 063.462.4491
부천 032.668.9700	익산 063.857.8910	

한국 YWCA

2018년 7· 8월호
 July·August
 Vol.552

특집 '청년여성과 페미니즘'

10대들이 말하는 페미니즘
 1020 탈코르셋운동
 '페미니스트 해고' 백래시에 맞서다

기획 'YWCA 성평등 운동 현장'

하남YWCA 성폭력상담소
 논산YWCA 어린이 성평등교육 'Y쌤쌤'

청년좌담

신지에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달의 현장

조아라 선생 15주기 '십자가가 된 낮은 땅의 어머니'



민주화운동과 광주YWCA 조아라 선생



100년을 앞둔 YWCA 역사는 한국 근현대사 여성운동의 역사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독재정권에 저항한 민주화운동, 성차별에 맞선 성평등운동에는 용기 있게 나선 여성들이 있었다.

YWCA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지도자는 '광주의 어머니' '민주화운동의 대모' '광주 기록 여성운동의 선구자'로 불리는 조아라 선생이다.

민족계몽운동가인 아버지 영향을 받고 자란 조아라 선생은 1923년 수피아여학교에 입학한다. 그곳에서 한국YWCA 설립자인 김필레 교장을 만나 광주YWCA와 인연을 맺으며 본격적인 항일운동과 여성운동에 뛰어들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광주독립학생운동에 참여해 옥고를 치렀고, 졸업 후에도 신사참배 거부 등으로 감옥살이를 되풀이했다.

1945년 해방 후 신사참배 거부를 위해 문을 닫은 광주YWCA 재건을 주도하고, 총무를 거쳐 회장과 명예회장까지 평생을 YWCA 운동에 헌신했다. 한국전쟁 중 전쟁고아를 위한 성빈여사와 불우소녀 가장을 위한 야간 중학교 호남여숙을 세웠다. 1962년 청소년 야학 별빛학원과 성매매여성 직업훈련을 위한 계명여사도 열었다.

암울한 독재정권 시절 그는 시대의 부름에 다시 응답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민주인사들이 구속되자 수감자 석방을 위한 목요기도회를 광주YWCA에서 매주 열었고, 대중강좌 '민중논단'을 열어 시민의식운동을 펼쳤다.

1980년 신군부가 민주주의를 외치는 광주 시민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자 광주YWCA를 개방, 시민항쟁의 근거지가 되었다. 그는 칠순에 가까운 나이에 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하다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출감 후에는 피해자 가족과 구속자, 부상자들을 돌봤다.

1980년대 가족법개정운동에 앞장섰고 1992년 분단 후 처음으로 열린 남북여성토론회에 참석했다. 평생을 민주, 평화, 인권, 여성운동에 헌신한 공로로 광주시민대상, 정일형 자유민주상, 무등여성대상, YWCA전국대회 대상 등을 받았다. 속옷을 기워 입을 정도로 검소했던 그에게 남종화 대가 허백련 선생은 '티 없이 결백하다'는 뜻의 호 '소심당(素心堂)'을 지어줬다. 2003년 타계해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치됐다. 광주YWCA는 2005년 조아라기념실을 열었고, 2015년 그가 기거했던 곳을 리모델링한 '소심당조아라기념관'으로 이전해 뜻을 기리고 있다.



조아라 선생의 10대 시절(앞줄 왼쪽)



1977년 광주YWCA와 부산YWCA의 공동 이사위원 연수에 참석한 조아라 선생(두번째 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

2018. 7·8 한국YWCA



표지이야기

7월 17일(화) 안양 연성대학교에서 열린 2018 경기 지역 YWCA 회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를 외치고 있다.

2018년 9월 주요일정

8월 31일~9월 1일

1922장학금 모금바자회

9월 5일

동부지역 회원대회

9월 6일

제3차 YWCA 지속가능포럼

9월 7일

YWCA 실무정책협의회

9월 12일~14일

YWCA 실무활동가 교육

9월 13일

제5차 길위의 평화포럼

제54권 제6호 통권 552호

2018년 8월 25일 발행 (등록번호 라-74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한영수 |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김민주·문미란·백수경·이경순
이은혜·이하나·정선경·조한나

편집 배정미·신미희·문윤희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주)신사고하이테크 031)989-0800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10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성소수자와 이방인, 예수님이라면 | **조은영**
- 05 **말씀묵상**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기도 | **박찬석**

특집 '청년여성과 페미니즘'

- 06 ① 10대들이 말하는 페미니즘 | **권우영**
- 08 ② 1020 탈코르셋운동 : 예쁜 '인형'이 아닌 '사람'이고 싶다 | **최선화**
- 10 ③ 페미니스트 해고라고? 페미니즘이 밥먹여준다 | **김예지**

기획 'YWCA 성평등운동 현장'

- 12 ① **하남YWCA 성폭력상담소** '미투' 이전에 우리가 있었다 | **김민주**
- 14 ② **논산YWCA 'Y쌔쌔'** 찾아가는 어린이 성평등교육 | **조은숙**
- 16 ③ **YWCA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동부지역위원회 | **원필숙**

- 17 **청년좌담** 신지에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평등의 기적을 만들고 싶다' | **편집실**
- 20 **이슈** 젠더와 종교 '예수는 왜 동성애를 언급하지 않았을까' | **최지영**

초점 'YWCA 여성평화순례'

- 22 ① 한민족여성과 함께하는 지리산 평화순례 | **백보람**
- 24 ② 제4차 길위의 평화포럼 '평화, 용서가 먼저다' | **서형원**

- 26 **국제** 한국·폴란드·아르메니아 YWCA 자매들이 만났다 | **김상은**
- 28 **이달의 현장①** 광주YWCA 조아라 선생 15주기 추모식 | **신미희**
- 30 **이달의 현장②** 가사근로자법 연구 유럽 현장연수 | **장옥현**
- 32 **이달의 현장③** YWCA 어린이집 원장 북유럽연수 | **정순영**
- 34 **회원YWCA 활동현장을 찾아서** 2018 경기지역 YWCA 회원대회 | **문윤희**
- 36 **인터뷰** 영화 <허스토리> 실화 주인공 김문숙 회장 | **김예은·김솔지**
- 38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사진전 <사는 거이 다 똑같디요> | **박미경**
- 41 **연합회 소식**
- 45 **회원YWCA 소식**

성소수자와 이방인, 예수님이라면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제1회계·실행위원



우리 중 누군가가 물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도 금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반대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우리도 반대 입장을 표해 기독교 공동체와 사회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나는 되물었다. “레위기를 말씀하시나요? 그럼 우리는 지금 구약에서 지키라고 한 내용을 모두 잘 지키고 있나요?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오늘날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에게 그 예수님은 어찌하셨을까요?”

우리 중 누군가가 또 물었다. “예멘 난민을 비롯하여 무슬림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 체류자가 점차 많아지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와 달라서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나는 되물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을 허락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우리에게 묻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YWCA는 성소수자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이 시대의 다양한 소수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연 ‘Y다운’ 실천이나 사랑은 무엇인가요?


지난 18년 동안 YWCA 공동체에 있으면서 가장 자주 듣고, 어느 누구도 구체적으로 규명하지 않고 있지만 우

리가 알고 있는 ‘Y다운’을 나는 ‘따로 또 같이’라고 말하고 싶다. 단 한 사람도 똑같이 않은 우리는 따로이나 각자 모습대로 빛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존중하며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간다.

각자의 ‘Y다운’이 우리의 ‘Y다운’으로 거듭나는 힘, 즉 다양성을 포용하고 오래 인내하며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하여 공동의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Y다운’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되물었던 두 질문에 나는 답한다. 성별, 외모, 언어, 소유, 경험, 지식, 삶의 방식, 취향, 문화, 신앙 등이 다른 그 누군가와 있을 때 우리는 친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불편을 겪거나 불이익을 감수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그들을 판단하고 구분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고. 이 땅의 낮은 자로 오셔서 지극히 작은 우리를 판단하거나 구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므로.

주님의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된 말씀인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로 시작하는데 이 구절의 영어 표현은 “Love suffers long (혹은 is patient), and is kind...”이다. 사랑은 아픔을 오래 참는 인내로 시작해 친절함으로 계속된다.

‘Y답게’ 사랑한다면, 친숙함에서 결별하는 아픔을 인내하며 두려움 없이 다름을 품는 친절함으로 나아가갈 때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기도

박찬석

미국 우스터대학 교수·목사



마태복음 6장 9~13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2018년 대한민국에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역사적인 일은 남북관계 변화입니다. 실향민 가족에서 태어난 세계 이 시간은 더 뜻깊게 다가옵니다. 어머니는 어릴 적 외할머니와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이모가 있는 남으로 오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빨래터에 가는 척 38선을 넘어려던 두 분은 그만 안내자와 길을 잃고, 인민군에게 붙잡혔습니다.

행선지를 묻는 그들에게 외할머니는 “이남에 있는 딸에게 간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싶던 그때 인민군에게 점심을 주려고 온 한 아낙네가 “그 사람들 죽여 뭐하냐”면서 그냥 보내주자고 합니다. 총을 겨누었던 인민군은 오히려 두 분을 안내했고, 무사히 남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백합니다. 기적과 같은 당시 생존은 할머니의 믿음과 정직함이 가져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남한의 많은 단체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에게 ‘필요한 양식’을 보내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제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는 구절입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 북미관계 저변엔 근본적으로 신뢰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어제까지 으르렁대던 남과 북, 미국이 급변하여 손잡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정말 믿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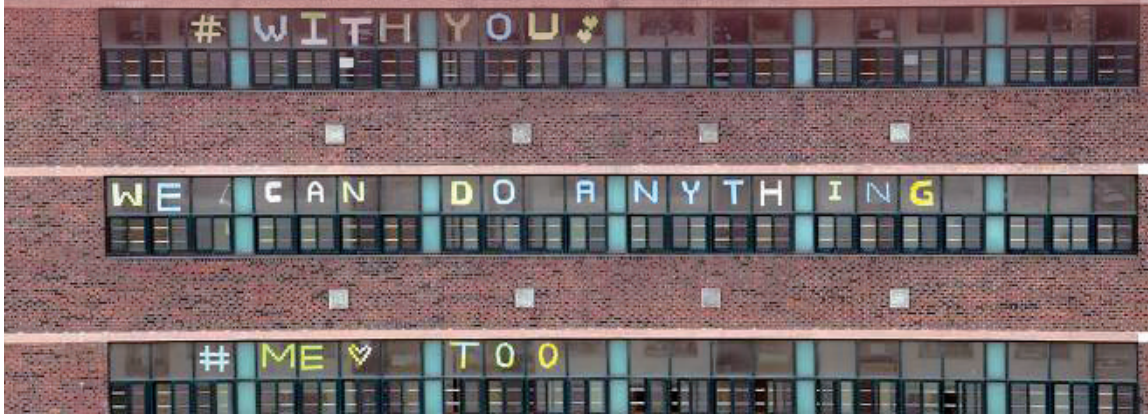
신뢰는 한반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앞선 탈북과정에서 어쩌면 외할머니의 정직함이 인민군에게 신뢰를 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인민군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도자 혹은 정치세력을 신뢰해서가 아닌,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에 한반도를 위해 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에는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복잡다단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며, 그 과정을 위한 신뢰는 장기간에 걸쳐 쌓여야 합니다. 오래 걸리고 때론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이 온전히 주어지는 역할을 저희가 감당하게 하시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신뢰를 잃지 않게 하시고, 폭력과 아픔과 전쟁에서 구하소서. 온전히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SNS에서 페미니즘을 배워야 하나요?



올해 4월 6일 서울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교사들의 성폭력을 폭로하자 재학생들이 선배들의 미투운동을 지지하기 위해 창문에 'MeToo', 'WithYou' 포스트잇을 붙였다.

권우영

안산YWCA Y-틴 회원

여성들의 용기 있는 외침 '미투'는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가정, 직장, 대학, 교회 등에서 차별과 폭력을 고발한 여성들의 목소리는 중·고등학교로 이어졌다. '10대 페미니스트'들이 등장했다. '짜증난다'고만 생각했던 일들이 알고 보니 성차별이고 혐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청소년(靑少女)들이 페미니즘에 눈을 떴다. 학교에 만연한 성희롱, 성추행을 그들의 방식으로 고발했다. 지난 4월 8일 학교 창문에 포스트잇을 붙여 교사들의 성폭력을 알린 '창문미투'부터 꾸밈노동을 거부하는 '탈코르셋' 운동까지 SNS를 활용해 공론화하거나 직접 신고했다. YWCA 청소년들은 10대 페미니스트를 어떻게 생각할까. Y-틴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왜 여자에게만 참견할까

페미니즘은 이제 10대들에게도 가까운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예전도 마찬가지였지만 요즘 10대 청소년에게 성차별은 일상이나 다름없다. 학교, 학원, 집 등 많은 곳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 주로 듣는 말부터 얘기하자면 “여자가~”라고 시작하는 말이다. “여자가 어떻게 민낯으로 다니니?”라던가 “여잔데 살 빼야지”라던가 정말 어이없고 화나는 말을 매일같이 듣는다.

여자라면 항상 조신하고 얌전하게 집안 일만 해야 하고, 언제든 예쁘게 꾸며야 하고, 힘든 일은 남자가 하도록 가만히 있어야 하고... 언제까지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야 할까. 답답해서 못살겠다. 그러면 남자는 왜 민낯으로 다니는데! 당신들은 몸매관리 왜 안 하는데! 본인들부터 제대로 하고 그런 말을 하던가, 왜 아무 문제없이 잘살고 있는데 참견일까.

예전에는 이런 말을 항상 듣다 보니 차별 발언인지도 몰랐다. 최근 페미니즘을 알게 되고서야 성차별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는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쓰고 예민해진다. 가령 어떤 문장에서 ‘여자가’, ‘남자가’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성차별 발언이다. 그동안 잘 몰랐지만 지금은 이런 고정관념이 올바르지 않다는 걸 안



권우영 Y-틴이 강의를 듣고 있다.



10대를 위한 페미니즘 입문강좌에 10대 페미니스트들이 모였다.

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 차별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친구들이 아직 많다는 게 안타깝다.

우리는 성차별 발언만큼 혐오 발언도 일상에서 많이 쓰고, 많이 듣고 있다. 가장 흔하게 쓰는 말은 ‘한남’, ‘김치녀’ 또는 ‘무슨 년’ 등이다. 이런 말이 좋지 않은 표현이라는 걸 알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기에 혐오 발언이 계속 생산되는 것은 아닐까 싶다. 이런 표현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는 게 속상했다. 그리고 내가 이런 혐오 발언에 맞서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슬프기까지 했다.

나는 일상 곳곳에서 차별과 혐오를 하나둘씩 발견하면서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느끼는 이런 불편함이 무엇인지 궁금해 인터넷으로 찾아봤다. 평소 좋아하는 유튜버 영상을 통해 페미니즘을 알게 되었고 관심이 생겼다. 페미니즘을 설명하는 조금은 긴 영상이었는데 궁금증을 푸는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모르는 내용이 더 많았다. 페미니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페미니즘을 제대로 알려주는 매체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린 페미니즘 교육을 원한다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었다. 7월 26일(목) 한국여성민우회가 주최한 10대를 위한 페미니즘 입문강좌 ‘다시 만난 세계’를 찾았다. 강의를 들으니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은 아무 것도 아니었다. 페미니즘에 대해 ‘진짜로’ 깊이 배웠다. 그 자리에 모인 친구들이 대단해 보였고, 페미니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왜 이제야 이런 강의를 들었는지 후회도

됐다. ‘더 빨리 알아볼 걸’ ‘더 많이 알아볼 걸’이라는 생각만 수십 번 했다.

말로만 듣던 10대 페미니스트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만난 것도 짜릿했다. 내 또래들을 보니 생각보다 더 대단한 거 같고, 그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싶어졌다. 나처럼 성차별과 혐오를 겪은 학생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고, 어쩌면 모든 학생이 같은 경험을 했을 수도 있다.

하루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주위 친구들이 하나같이 날 쳐다봤다. 당황스러웠다. 못할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뭔가 잘못된 것처럼 분위기가 이상했다. 마음 같아선 뭐라고 한마디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용기가 부족했다. 이런 경험을 한 친구들이 많을 것이다.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페미니즘이 더 많이 알려지고, 특히 10대 페미니스트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학교 정규교육 시간에 페미니즘 과목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페미니즘을 올바르게 가르쳐줄 수 있는 페미니스트 교사도 생겼으면 한다. 매주 1시간, 아니면 한 달에 1시간이라도 배웠으면 좋겠다. 페미니즘이 우리 삶과 일상의 문제라는 것을 수업을 통해 제대로 배우길 바란다. 교복도 바뀌야 한다. 여학생 교복은 치마고, 남학생 교복은 바지다. 심지어 아동복과 비슷한 사이즈의 여학생 교복도 있다. 교복을 바지로 통합하거나 여학생용 바지를 만들어 우리 몸에 편한 교복을 입었으면 한다. 

예쁜 '인형'이 아닌 '사람'이고 싶다



1968년 9월 7일 미사아메리카대회 반대시위에 모인 페미니스트들이 코르셋 하이힐, 브래지어, 화장품 등을 자유의 쓰레기통에 던지고 있다.

최선화

수원YWCA 대학·청년Y 회원

누가 '꾸밈노동'을 강요하는가

여성들은 언제부터 꾸미기를 시작하고, 코르셋을 입었을까.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사회통념에 맞춰 나를 꾸밀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다. 유아 시절엔 '예쁜' 여자 인형을 놓고 화장놀이, 옷 입히기 놀이 등 자연스럽게 꾸밈놀이를 하며 자랐다.

말을 배우면서 보기 시작한 영화, TV, 만화 등에서 여성의 화장이나 예쁜 옷, 다이어트 고민은 당연한 주제였다. 심지어 여성 의류와 화장품을 선전하는 광고는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원피스"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메이크업" 등의 문구로 여성 소비자의 구매를 독려했다. 여성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디어 속 여성들의 외모에 익숙해졌다.

"너 오늘 화장 안 했어? 좀 아파 보인다." "여자들이 화장하는 건 기본 예의지." 너무 피곤하고 귀찮아서 화

장을 하지 않고 학교에 간 날이면 어김없이 동아리 선배에게 들었던 말이다. 나뿐만 아니라 화장을 하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간 여성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말이다. 왜 우리는 화장을 해야지만 '아프지 않고', '예의 있어' 보이는 것일까. 1020세대 여성들은 외모를 향한 사회적 억압에 질문하기 시작했다. 외모 꾸밈은 노동에 비유할 만큼 고돼서 '꾸밈노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꾸밈노동의 해방을 외치는 '탈코르셋 운동'을 낳았다.

"사회의 시선에 억압받고 싶지 않아요!" 요즘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서 펼쳐지는 탈코르셋 운동이 1020 여성들에게 큰 화제다. '코르셋'은 여성의 몸매를 날씬하게 보일 수 있도록 고정하는 보정속옷이다. 과거 코르셋 때문에 갈비뼈가 부러져 숨지는 여성들이 있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옷이었다. 그만큼 여성에게 강요된 아름다움의 상징이 코르셋이다.

탈코르셋은 긴 생머리, 날씬한 몸매, 짧은 치마, 하얀 피부, 짙은 화장까지 그동안 여성들에게 강요된 아름다움의 굴레였던 '코르셋'을 벗어 던지자는 움직임으로 여성들이 남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 꾸미지 않을 것을 주장하는 사회운동이다. 여성들에게 획일화된 외모 기준과 여성성을 강요하는 사회적 정의를 거부하겠다는 취지다.


탈코르셋 운동은 '꾸밈노동'에 반대하며 화장 안 하기, 다이어트 안 하기, 하이힐 안 신기, 브래지어 안 입기, 겨드랑이 제모하지 않기, 긴 머리 자르기 등으로 실천되고 있다. 트위터와 유튜브에 탈코르셋을 검색하면 다양한 이미지와 영상이 뜬다. 사용하던 모든 화장품을 부수고 버린 사진과 영상엔 해시태그로 '탈코르셋'이 적혀 있다. 화장방법을 영상으로 보여주던 뷰티 유튜버가 탈코르셋을 선언하고, 채널을 내려놓기도 했다. 탈코르셋 운동은 많은 여성들의 변화를 보여줬다. 동시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꾸밈에 시간과 자금을 투자했는지도 한눈에 보였다. 탈코르셋 운동의 중심에는 1020세대가 있다. 직장, 대학교, 중·고등학교 등에서 다양한 여성들이 탈코르셋을 이야기하고 실천하고 있다. 탈코르셋을 행동으로 옮긴 여성들은 "편하다" "아침에 등교나 출근을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졌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나다운 나를 찾았다" 등의 후기를 털어놨다. 가장 눈길을 끈 소감은 "우리는 예뻐야만 하는 인형이 아니라 '사람'입니다"였다.

'쇼트커트 여자가 아닌 그냥 '나'

나는 몇 달 전 쇼트커트 스타일로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유는 딱히 없다. 굳이 뽑자면 '더워지니까' '헤보고 싶어서' 정도다. 그런데 나를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진 걸 느꼈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는 "누구랑 헤어졌

어?" "요즘 힘들어?"였다. 대부분 남성들이 건넨 말이였다. 아, 여자가 머리카락을 자르면 이별하고 실연당한 여자가 되는 세상에 나는 살고 있었다.

"남자 같다"라는 반응도 있었다. 정확히 옮기자면 "예쁜 최성민(남동생) 같다"라는 말이였다. 웃어 넘겼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쇼트커트는 남자들만의 전용인가?' '왜 쇼트커트 스타일의 여성들은 남자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라는 의문이 들었다. 쇼트커트를 하든, 바지를 입든, 화장을 안 하든 나는 그냥 최선화다. 나의 바깥은 세상이 '여자' 최선화가 아닌 '인간' 최선화로 바뀔라는 것이다. 친구들과 탈코르셋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 의견이 나뉘진다. 탈코르셋을 지지하는 친구들은 사회적인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한다. 탈코르셋을 지지하지 않는 친구들은 누군가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나를 꾸미고 예쁜 옷을 입는 것이 좋을 뿐이라고 말한다.

자신을 꾸미는 일과 꾸미지 않는 일은 모두 개인의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가 요구하는 아름다움과 꾸밈이 왜 여성에게만 강요되는가는 중요한 문제다. 많은 남성들은 '우리는 화장을 강요하지 않았다, 다이어트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당연하듯 여성들에게 꾸미는 외모의 아름다움을 요구해왔다. 선택과 가꿈처럼 보이는 꾸밈이 사실은 선택이 아니라 '여성'은 아름답고 날씬해야 한다'는 굴레였던 것이다. 꾸밈을 강요하지 않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있는 그대로 '인간'이란 존재로 인정받기를 바란다. 그리고 꾸밈이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탈코르셋 운동에 동참하는 여성들이 SNS에 올린 인증사진

페미니스트 해고라고? 페미니즘이 밥먹여준다!



김예지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기획국장
서울YWCA 대학·청년Y 회원

2017년 12월, 외식 프랜차이즈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아웃백) 채용에 지원했던 한 여성이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합격이 취소됐다. 피해 여성은 “페미니즘 활동하고 다닌다고, 뽑으면 문제 생길 사람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페이스북 활동 기록들과 함께”라며 담당자와의 메신저 내용을 SNS에 올렸다. 아웃백에서 지원자 합격을 번복한 이유는 그가 ‘페미니스트’였기 때문이다.

올해 6월에는 커피전문점 이디야의 한 지점주가 휴화역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 참여한 여성 종업원을 부당하게 해고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이디야 본사는 진상과약에 나섰고, ‘페미니스트이기’에 부당해고 당했다’는 피해 여성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됐다. 여성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낸 이들이 노동의 권리를 빼앗긴 것이다.

“페미니즘이 뭐니 회사에서 안 좋게 봐요”

“우리는 빵을 원한다. 또한 장미도.” 1912년 미국 로렌스 섬유공장에서 파업에 나선 여성 노동자들이 외친 말이다. 그들은 단순히 노동권 보장만을 위해 투쟁하지 않았다. 생존을 의미하는 ‘빵’과 권리를 의미하는 ‘장미’를 달라며, 생존을 위한 ‘노동권’과 함께 ‘여성의 권리’ 보장도 외쳤다. 노동현장에서 여성 노동자는 노동자이면서 ‘여성’이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고용, 임금 등 노동환경 차별은 여성들이 사회에 발을 들이기 전부터 시작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영향평가센터장은 지난해 2월 “저출생(저출산) 원인이 여성들의 고스펙에 있다”면서 “불필요한 고스펙”에 불이익을 줘 여성들이 눈을 낮춰 소득과 학력 수준이 낮은 남성과 결혼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비판을 받았다.

능력 있는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는 결혼 후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으로 사회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이다. 아내, 주부, 엄마로서 독박유아, 독박가사를 강요받은 여성들은 전업주부로 지내다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선다. 그러나 이미 경력이 단절된 40~50대 여성들은 노동환경이 좋은 곳에선 환영받지 못한다. 그래서 가장 열악한 곳으로 밀려난다.

대한민국 여성을 위한 법과 제도, 정책은 부족할 뿐더러 실효성도 낮다. 여성들은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페미니즘을 외치며 거리로 나선다. 그러나 남들보다 나은 삶도 아닌, 단지 남들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여성은 일할 권리조차 박탈당한다. 취업담당자들은 이런 얘기도 한다. “SNS 관리 잘 하세요. 페미니즘이니 뭐니 이런 거 회사에서 안 좋게 봐요.”

페미니즘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면, 번듯한 직장 얻어서 밥 벌어 먹으려면 페미니스트인 것을 숨기란다. 페미

니스트가 무슨 전과자도 아니고 숨길 게 뭐가 있을까. 내가 내 권리 찾겠다는데 말이다. 페미니즘이 밥 먹여 주냐고? 페미니즘 덕분에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투표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페미니즘이 아니면 무엇이 여성들에게 밥과 권리를 주었는가.

대학교 3학년, 취업생 청년 여성인 나

여자대학교에 다니는 나는 종종 이런 소리를 듣는다. “요즘 여대생들 기가 너무 세서 회사에서 여대 출신 지원자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던데.” 아직 취업시장에 뛰어들어보지 않은 나로서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 하지만 이런 말이 여성 취업생들에게 아무렇지 않은 것도 아니다. 아웃백과 이디야만 봐도 실제로 그렇지 않았는가.

남성들에 의해 끊임없이 대상화되는 여성, 제대로 된 법적 제도적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 이 두 가지 짐을 모두 지고 있는 여성청년인 나는 사회로의 첫 발을 디디기 전부터 발을 떼기조차 무서워진다. A로 채워진 성적표를 받기 위해, 높은 어학점수를 받기 위해, 똑같이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다님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인 내가 내 권리를 찾겠다는 이유로 나는 그리고 우리는 유리장벽에 부딪힌다.

유리장벽에 부딪혀 취업시장의 문턱도 밟지 못하고 나가떨어진 여성청년들에게 남성들은 “이런 것도 못 버티니까 여자들이 큰 일을 못하는 거야”라고 말한다. 기성세대들은 “우리 때보다 먹고 살기도 좋아졌지만, 요즘 젊은 애들은 나약해서 못쓰겠어”라고 말한다.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사회에서 우리가 못 버티는 것이 아닌 버틸 가치가 없는 것이다. 지금 세대 청년들이 나약한 것이 아니라 사

회가 모진 것이다.

수많은 여성들이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노동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바로 YWCA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올 한해 YWCA는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밥줄이 끊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Me Too”를 외치며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과 함께했다.

권력 앞에서 개인은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이지만 연대하는 여성은 세력계티 초원에서 호랑이도 이겨내는 물소 떼와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야 할 차례이다. 끊임없이 여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도입을 촉구하고, 약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YWCA의 숙명이다.

나 또한 여성의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청년의 권리를 위해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같이 투쟁하는 여성청년 운동가로 성장할 것이다. YWCA에서 수많은 여성지도자와 청년운동을 배출한다면, 대한민국 사회가 성평등한 사회로 성큼 다가설 것이라 믿는다. ♡



피해 여성과 아웃백 담당자와의 메신저 내용(출처 여성신문)



하남YWCA 성폭력상담소 앞에서 한영애 소장, 이해정 상담원, 손명진 실장(왼쪽부터)이 웃고 있다.

글 김민주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위원회 위원
사진 문윤희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팀 간사

2018년 대한민국은 '미투운동'이라는 큰 번곡점을 맞았다. 성폭력을 당하고도 말하지 못한 채 숨어야만 했던 피해자들이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Me Too'(미투)를 외치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With You'(위드유)로 답하며 용기 낸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미투 이전부터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한 곳이 있다. 전국 곳곳에서 활동하는 성폭력 상담기관이 대표적이다. YWCA에도 40여개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쉼터 등이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2000년 개소한 하남YWCA 성폭력상담소는 상담, 예방교육, 인식개선 등을 중심으로 성폭력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다.

상담부터 교육, 캠페인, 홍보까지 1인다역

한영애 하남YWCA 성폭력상담소장을 처음 만난 곳은 하남경찰서였다. 이른 아침부터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조사과정에서 일어나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뢰받은 강의를 진행했다. '성폭력상담소'라는 이름 때문에 '상담'만 할 것이라는 예상은 그렇게 깨졌다. 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 상담부터 예방교육, 캠페인,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한영애 소장은 예방교육을 '적극적 상담활동'이라고 표현하며 "내담자가 오는 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뜻하지만, 사전상담 교육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도 주요 업무는 피해자 지원이다.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성폭력상담소를 알게 된 피해자들이 연락하면 1차 상담을 하고 그 내용에 따라 상담, 의료,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형사사건으로 넘어간 경우 증거물 채취에 동행하기도 하고 상담 의견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기도 한다. 이후 기소가 되면 신뢰관계로 재판에 동석하거나 피해자에게 변호인을 연결해주기도 한다.

지원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지지를 보내고 공감함으로써 이겨낼 힘을 주는 것이다. 손명진 실장은 "성폭력 피해는 아무도 몰라주는데 피해자만 힘든 게 많다"며 "(성폭력 사건은) 단순하게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긴 시간을 버틸 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폭력 사건은 수사 시작부터 1차 공판까지 1년 넘는 시간이 걸리고, 항소나 상고로 재판이 열릴 때는 더 많이



한영애 소장이 하남경찰서에서 강의하고 있다.

소요된다. 긴 싸움을 함께하며 힘들고 지치지 않는을까. 한영애 소장은 "처음엔 온전하게 지원을 못하면 어쩌나 두려웠지만 내 활동이 피해자 일상을 바꾼다고 생각하면 감동적"이라고 답했다.

미투는 사회와 현장을 바꿨다

오랜 시간 피해자들과 함께한 이들에게 미투운동은 어떤 의미일까. 2004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한영애 소장은 "개인문제로 치부했던 아픔에 우리 사회가 공감하고, 피해자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 것"이라며 "피해자들도 '나만의 아픔이 아니었음'을 느끼며 당당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투운동 이후 상담소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시민들의 성인지 감수성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혁명적인 인식변화를 가져왔다. 여학생과 달리 성폭력 예방 강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빈정대기도 하던 남학생들이 미투운동 이후 열린 마음으로 강의를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손명진 실장은 "중·고등학교에서 강의하면 남학생들도 적극 귀기울인다. 잘못하면 자신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에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관심도가 높아진 듯하다"고 말했다.

활동가들의 보람도 커졌다. 이해정 상담원은 "(지난 3월 성폭력 피해자들이 연출가 이윤택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을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내가 지금 이 현장에 있구나, 직접 지원을 해드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한영애 소장은 "일할 맛이 난다"고 했다.



이혜정 상담원, 한영애 소장, 박훈아 노인성인식개선사업 담당자(왼쪽부터)가 일하고 있다.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그러나 성폭력상담소 환경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반(反)성폭력 운동이란 개념으로 소규모에서 시작한 초창기와 달리 점차 인력이 보강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급여나 운영비는 그대로다. 활동가들도 한목소리로 열악한 처우를 지적했다. 손명진 실장은 "기본적으로 (활동가) 생활이 돌아갈 수는 있게 해줘야 한다. 사회의 식을 가진 젊은 친구들이 왔다가도 처우가 나쁘니까 그만두게 된다"고 전했다. 여성폭력관련 시설 대부분이 겪는 일이다. 한영애 소장은 "여성폭력관련 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장 열악하다"면서 "여성 인권이 자리 잡으려면 여성 인권을 공부한 청년들이 들어와 연구하고 토론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예산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간가는 줄 모를 정도로 성폭력상담소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자 활동가들은 "원래 여기가 그렇다"며 웃었다. 이해정 상담원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분위기 덕분에 이겨낸다"고 말했다. 성폭력상담소 특유의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은 활동가들의 태도에도 묻어났다. 인터뷰 도중 내담자가 찾아오자 활동가들은 마치 딸이나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반갑게 맞았다. 이런 따뜻함이 피해자들의 마음을 녹이고 말할 용기를 북돋는 것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여전히 아픔을 말하지 못하고 과거 기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한영애 소장의 말을 전하고 싶다.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어. 너는 정말 귀한 존재야."



충남 서산시 어린이집에서 논산YWCA가 찾아가는 어린이 양성평등교육 'Y쌤쌤'을 진행하고 있다.

성평등 씨앗을 심는다
논산YWCA 찾아가는 'Y쌤쌤'

조은숙

논산YWCA 간사

성평등한 미래를 위해

세계경제포럼이 지난해 144개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교육·건강·정치참여 등 4개 분야에서 남녀간 격차를 평가하고 분석한 결과, 한국은 116위를 차지했다. 또한 전국 16개 시도별 지역 성평등지수 중 충남은 5년 연속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해 2012년 이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충남은 성평등 향상을 위한 개선 대책이 필요한 지역이다.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면서 논산YWCA는 매년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열어 논산지역 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 특강, 우리 동네 양성평등리더 활동가 양성, 마을모니터링, 성평등한 우리 동네 캠페인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성평등'은 먹고 사는 문제만큼 급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지 행사 때마다 인원을 동원하길 되풀이했다.

어른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강의와 프로그램은 많다. 그러나 성평등한 미래를 위해 다음세대인 아동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적다. 논산YWCA는 지난해 '엄마는 성

평등교육 강사' 양성부터 시작했다. 엄마는 성평등교육 강사' 교육에 참여한 수료생들이 논산시 어린이 1,200명을 대상으로 성평등 강의를 시연했다. 이 과정에서 10명의 강사를 뽑아 심화교육과 견학을 보강해 어린이 성평등교육 강사단 'Y쌤쌤'을 구성했다. 'Y쌤쌤'은 성평등 씨앗을 전하는 어린이교육 강사단을 일컫는다. YWCA 첫 글자 'Y'에 '같다'(same)는 영어표기와 '선생'의 줄임말인 '쌤'을 합쳐 만들었다.

'Y쌤쌤'으로 모인 강사들은 매주 모여 공부했다. <82년생 김지영>을 읽으며 여성이기 때문에 감내해야 했던 수많은 사회적,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했다. 과거 경험이 현재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에 좌절하기보다 성 인식이 고착되기 전 어린이들을 교육해 다음세대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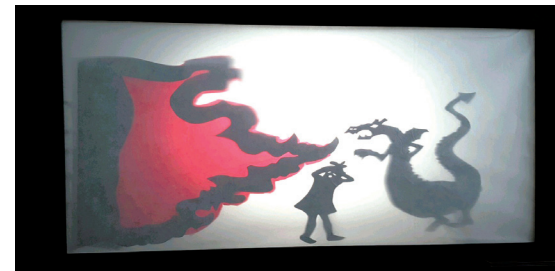
'Y쌤쌤'은 매달 두 번씩 모였다. 초기 열정적으로 참여하던 강사들이 개인 사정이 생기면서 올해는 5명 정도 남았다. 현재는 매달 한 번씩 모이고, 교육이 있기 전에는 연습을 위해 수시로 만난다. 멘토인 임원정규 성평등 활동가의 도움으로 'Y쌤쌤'이 지역에 알려졌고, 충



청양유치원에서 열린 '찾아가는 어린이 양성평등교육'



'Y쌤쌤' 강사들이 상황극을 시연하고 있다.



성평등을 담은 '종이봉지공주' 그림자 종이인형극



인형극단 '도담도담'을 찾아 학습 중인 'Y쌤쌤' 강사들

청남도 관계자는 시군 보육시설에서 'Y쌤쌤'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 여러 곳에서 요청이 잇따르며 교육 기회가 많아졌다. 올해는 충남 지역을 순회하자는 계획도 세웠다.

모두가 평등한 날을 꿈꾼다

어린이 성평등교육은 종이인형극, 활동체험, 성평등 개사곡 등으로 진행된다. 그림자 종이인형극은 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를 각색해 혼자 많은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의 어려움을 깨우칠 수 있게 했다. 동요 <나비야>를 "엄마도 아빠도 함께 할 수 있어요/설거지 다림질 자동차 수리 잘해요/남자일 여자일 나누어 있지 않아요/모든 일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어요"로 개사해 고정되지 않은 다양한 가족구성원의 역할을 이야기했다.

어린이들은 집중시간이 짧아 '30분 교육'으로 효과를 높인다. 'Y쌤쌤'은 어린이들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7번을 기본으로 49번 쯤 반복해야 행동수정이 가능하다는 마음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표현을 익히고,

※ 한국YWCA연합회는 '성평등운동'을 4대 운동과제로 채택하고 있으며, 공식표기는 '성평등'으로 합니다.

현장감을 단련하기까지 좌절할 때도 많았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Y쌤쌤'은 성장하고 있다. 인내심을 갖고 어린이들이 올바른 성평등 인식을 갖고 자라날 수 있도록 열심히 '성평등 씨앗'을 심을 것이다.

상반기 첫 순회교육은 6~7세 아동이 있는 청양 어린이집부터 시작해 200여명의 어린이를 교육했고, 부여군 충화초등학교 20명과 서산시 어린이집 16명도 교육했다. 9월부터는 충청남도 청사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참관수업을 열고, 홍성군에서는 330명의 아이들과 만날 계획이다.

성평등이 시대정신이 되었지만 '성평등'이란 이름을 두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 아니냐며 접수를 취소하는 곳도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미래세대 핵심역량으로 '사회적 상호능력'을 꼽는다. 양성평등교육, 더 나아가 성평등교육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인식을 배우며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힘'도 길러준다. 성평등 사회의 주체가 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성평등교육이 이뤄질 때 모두가 평등한 날이 앞당겨질 것이다. YWCA



YWCA는 성차별 현안 이해를 높이고, 성평등운동 목표를 공유하고자 회원YWCA 활동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평등교육'을 진행했다. 6월 20일(수) 대구YWCA에서 열린 동부지역위원회 교육에 대한 소감을 쓴다. 필자 주관이 들어간 글은 YWCA 정책방향과 다를 수 있다.

원필숙
통영YWCA 회장

뉴질랜드 재신더 아던 총리가 6월 21일 첫 딸을 낳았다는 뉴스는 충격적이었다. 임기 중 출산한 첫 총리인 아던은 6주간 출산휴가에 들어갔고, 업무에 복귀하면 사실혼 관계의 방송인 클라크 게이포드씨가 육아를 맡는다. 특권을 행사하지 않고, 평범한 시민처럼 게이포드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공공병원에 입원해 출산한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 국민을 감동시켰다.


이 소식은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왔다. 총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엄마 역할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것, 아빠도 좋은 직장을 갖고 있지만 육아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은 양성평등의 표본이라고 느꼈다. 특권의식을 갖지 않는 총리를 국민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하루 전날인 6월 20일, '동부지역위원회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참석을 위해 대구YWCA를 찾았다. 그런데 강의가 진행될수록 혼란스러웠다. 2000년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때만큼 머릿속이 뒤엉켰다. 한국YWCA가 여성평등 → 양성평등 → 성평등으로 정책과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수성애자들을 인정하지는 뜻으로 전달됐다. 제3의 성을 가진 중성을 공홀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동성애자를 인정하는 것은 성경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YWCA 목적문을 낭독해 본다.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소수자란 통상적으로는 상호간 사전 동의하에 이루어진 동성간 성적 및 구애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인데 YWCA 성평등교육 취지는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는 것 같아 강의시간과 그룹별 토론시간까지 혼란이 이어졌다.

통영YWCA 회장으로 취임하고 첫 번째로 한 일이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미투운동'이었다. 그때도 진실이 무엇인지, 정치성은 없는 지를 가장 염두에 뒀다. 지금 YWCA가 목표로 하는 성평등운동은 너무 급진적인 진보운동으로 성경에서 제시하는 창조질서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호주 선교사들이 설립해 통영에 복음의 씨앗을 처음 전해준 최초 교회 자리가 관광지로 변하고, 강대상이 있던 자리는 음식점 VIP석이 되었다고 한다. 교회가 자꾸 사회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나라도 불을 보듯 뻔하다. YWCA(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는 C(Christian)가 빠진 YWA가 되지 않길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김광식 청주YWCA 일하고참여하는청년의집 간사, 김수진 한국YWCA연합회 대학청년담당 간사, 문윤희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팀 간사, 신지에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이 이야기하고 있다.

진행·글 편집실

6.13 지방선거는 무엇을 남겼을까. 여당의 압승과 보수의 몰락 속에 주목 받는 낙선자가 있다. '여성'과 '페미니즘'을 공론장에 끌어낸 신지에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다. 스물여덟 살의 20대 여성청년 정치인은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출마해 원내정당 후보를 제치고 4위에 올랐다. 청년정치, 페미니스트 정치에 대한 희망과 과제를 동시에 던져준 그를 YWCA 청년 활동가들이 7월 23일(월) 연합회에서 만났다.

젊은 세대는 새로운 정치를 원하고 있다

김수진 ▶ 청년정치인 신지에는 어떻게 탄생했나요?

어릴 때부터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중학교 때 두발자유운동, 청소년인권운동을 했고 민주노동당에 가입했죠. 권리당원으로 활동하지는 못했지만요. 지금도 녹색당 빼고는 정당들이 청소년 당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녹색당에는 2011년 가입했어요. 민주주의 실험과 평등문화를 추구하는 당헌, 당규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대안학교 하자작업장학교를 다녔고, 청년과 지역재생을 위

한 사회적기업 '오늘공작소'를 하기 전에는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이야기꾼의 책공연' 창립멤버였고요. 색다른 활동 속에 경험을 쌓고, 어리다고 물러나는 게 아니라 동등한 주체로 인정받으며 자연스럽게 훈련된 듯해요.

김수진 ▶ 청소년 지방선거 모의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청년·청소년의 공감을 크게 얻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 사회는 지금 역사의 한 장이 넘어가고 있어요. 시민들이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을 주저앉힌 순간부터



신지예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정치적 변화가 본격화되었고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반공이데올로기에 억눌렸던 의제들이 떠오르고 있죠. 여성인권, 성평등, 성소수자, 난민, 소득불평등 등 낡은 프레임을 가진 기존 정당은 이런 의제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어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사회도, 정치도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고요.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것이죠.

김수진 ▶ 불평등, 세대갈등을 안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청년'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던 배경이 궁금합니다.

녹색당은 대의원대회 전면추첨제, 공천제 폐지 등 실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성참여 비율도 과반 이상이고요. 조직을 만들 때 항상 두 명의 대표를 뽑아야 하는데 과반 이상이 여성이어야 해요. 여성들이 자신의 생각과 여성성을 버리지 않아도 리더가 될 수 있죠. 강령에 성평등과 페미니즘을 명시했지만, 개인 삶까지는 적용되지 않아 2016년 평등문화약속문도 만들었죠. 공동현장에 다양성 옹호도 있어요. 소수성을 지닌 시민 누구나 자기 존재 그대로 정치할 수 있는 비전이 제가 청년정치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됐어요.

김광식 ▶ 페미니즘 선거전략은 불리할 수도 있었는데 고민은 없었나요?

정당의 역할은 국회나 의회로 진입해 법을 바꾸고 일상을 바꿔내는 거죠. 한편으로는 사회에 의제를 던지고 시민의식을 높이는 것이고요. 녹색당은 이번에 원내로 진입하기 쉽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의제를 던지고, 꽉 막혔던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면서 정치에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성문제는 특히 그랬죠.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이후 여성들의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잖아요. 검은 시위, 미투운동, 불법촬영물 편파수사 규탄집회 등 그럴 때마다 이슈는 크게 되는데 여성의 일상은 바뀌지 않죠.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는 '꽃뱀'으로 몰리고, 불법촬영물은 계속 올라오고요. 이런 문제가 시민들에게 정치 불신을 일으키고 있다고 봐요. 정치 불신을 깨기 위해서 우리 일상을 뒤흔드는 의제에 답을 내놓고 싶었어요. 그런 사람이 서울시장이 된다면, 개인의 일상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상상력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었고요.

김수진 ▶ 처음엔 가능할까 싶었지만 '저 사람이 당선 되면 어떻게 바뀔까'라는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다음 총선이 더 기대돼요. 가령 '낙태가 죄'라면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서울시장 후보 공약으로 임신중절 여성을 위한 의료지원을 제안했는데 이 용률 1.7%에 불과한 서울시내 보건소를 젠더건강센터로 만들어 여성, 이주여성, 장애여성, 성소수자의 건강을 공공의료시스템에서 보장하자는 것이에요. 입법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은 더 많은 걸 할 수 있으니 훨씬 행복한 전략을 짤 수 있겠죠.

선거제도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

문윤희 ▶ 신인이자 여성청년 페미니스트로서 정치도 전이 쉽지 않을 텐데요.

남성위주 정치편을 깨는 방법으로는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에요. 지금 선거제도는 소수자들의 진입이 매우 어려워요. 돈과 권력, 인맥, 인지도 없는 신인은 기존 정당에 '픽업'되지 않는 이상 정치하기 힘들죠. 지지율 5%를 넘어야 TV토론 출연이 가능하고, 득표율 15%를 넘어야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도 신인에게만 특이죠. 비례대표 수는 너무 적고, 1등만 당선되는 '지역구 순다수대표제'도 마찬가지고요. 선거제도 개혁은 2020년 총선의 문제가 아닌 당면과제예요. 기성세대, 중년, 386세대 중심의 '아재정치'가 진짜 굳건해요. 녹색당의 원내 진입은 이런 '유리천장'을 깨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윤희 ▶ 시급히 풀어야 할 페미니즘 이슈는 무엇일까요?

성평등을 헌법에 명시하는 게 가장 시급해요. 헌법수정이 안 될 경우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도 대안이고요. 차별 문제를 여성 인권, 시민 권리의 문제로 풀어낼 수 있어요. 성평등을 헌법에 명시하거나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면 하위단계에서 풀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김광식 ▶ 생물학적 남성이 당사자 의식을 갖고 페미니즘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젠더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이란 것은 불명확한 개념이에요. 저는 '모두가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별, 성격, 성적지향, 본성이 어떻든 누구나 동등해야 하고 인류사를 관통해온 '가부장제를 없애자'는 페미니즘에 동의할 수 있다고 봐요.

김광식 ▶ 청년단체로 시작한 YWCA도 청년성 회복이 과제가 되었어요. 청년운동 무엇이 중요할까요?


청년운동 단체는 청년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

어요. 청소년기가 지나고 우리 사회에 자리 잡기 전 사회, 문화, 경제 권력이 없다 보니 그 이행기에 놓인 일정한 연령대가 청년이죠. 연령은 30살까지라고 봐요. 그런데 청년성이 정치적으로 오·남용되고 있어요. 청년운동은 이행기 과정의 청년들이 중심이 되는 게 맞아요. 청년녹색당은 그런 청년들이 주체예요. 돈도 청년들이 쓰고, 조직도 하고, 사업도 진행해요. 그렇게 경험을 쌓아서 다음 단계인 녹색당으로 넘어가고요. 청년운동은 그런 구조를 갖는 게 중요해요.

김수진 ▶ 그런데 청년이슈를 말하는 사람 중에 정작 청년은 많지 않아요.

사실 청년문제는 청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자유주의가 심해지면서 노동이 불안정해지고 소득이 불평등해지니 성인이 된 청년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 1순위에 놓인 거죠. 노인으로 가면 이런 풍파를 겪지 않을까요? 한국은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예요. 세대가 아닌 모든 시민의 문제인 거죠. 청년의제가 청년의 문제로 읽히는 순간, 처음엔 조직하기 쉽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생겨요. 결혼하면 청년의제를 갖기 어렵거든요. 나이로는 청년이어도 청년이 아니니까요. 어떤 방식으로 청년을 다시 조직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해요.

문윤희 ▶ 마지막으로 '20대 페미니스트 청년정치인' 신지예의 꿈은 무엇인지요?

이번 선거에 나오면서 '평등의 기적'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서울이 '한강의 기적'을 바탕으로 두고 경제성장제일주의나 개발중심주의 사업을 펼쳐왔잖아요. 서울뿐 아니라 한국의 패러다임이었지요. 이제 바뀌어야 해요. 경제나 성장이 아니라 평등을 이야기할 때가 됐어요. 우리 사회에 무엇이 평등이며 우리가 어떤 인권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가를 논의할 때가 되었죠. 한국사회 변화의 중심에 우리 세대가 서 있어요. 그중 한 명으로서 일조하고 싶고, 평등의 기적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예수는 왜 동성애를 언급하지 않았을까



강남순 교수가 '젠더와 종교'를 주제로 강의하면서 예수 가르침의 핵심을 강조하고 있다.

최지영

한국YWCA연합회 Y아카데미 생명비전연구소 간사

7월 2일(월) 낮 10시 한국YWCA연합회 강당에서 연합회 실무자 특강이 열렸다. 강남순 미국 텍사스 크리스천대학교 브라이트 신학대학원 교수가 '젠더와 종교'를 주제로 강의를 했다.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섹스와 젠더

젠더와 종교(Gender and Religion) 하면 생각나는 단어는 무엇인가? 창조질서, 사회제도, 성소수자, 권사와 장로, 성평등, 가부장제와 여성, 마녀 사냥, 권력과 순종, 영아살해, 총돌, 편견 등이 떠오를 것이다.

왜 섹스(sex)란 단어로 충분하지 않고, 젠더(gender)란 말이 등장했을까? 섹스(sex, 성)는 생물학적 성인 남자(male)와 여자(female)를 말하며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 처음으로 젠더(gender)라는 용어의 개념이 만들어진 것은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가 1949년 출간한 <제2의 성>에서 그 의미를 담은 “여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에서 비롯됐다. 여

자뿐 아니라 남자도 해당되는 이 유명한 문구는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성을 이야기했다.

최근에는 염색체, 생식샘, 성 호르몬, 성기 등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 정의에 규정되지 않는 간성(intersex)도 있다. 부분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질을 함께 갖는 생물학적 성인데 많은 나라에서 성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과 호주는 법적으로 간성을 또 하나의 성(sex)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성(sex)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가져왔다. 최근 학계 흐름도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sex)만 인정하는 걸 당연하지 않다고 본다. 어떤 학자들은 5개, 9개의 성(sex)도 가능하다고 논문으로 주장한다. 이제는 3

개의 성(sex)이 법제화되고 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세상에 남성과 여성만 있다는 이분법적인 사유방식을 깨야 한다.

지금의 '동성애' 개념은 19세기 등장

다양한 성은 왜 문제가 되고 있을까?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섹스(sex)에서 간성(intersex)이, 젠더에서 트랜스젠더(transgender)가 등장했다. 18-19세기 신학과 철학, 성서에는 '트랜스젠더'란 개념 자체가 없었다. 트랜스젠더는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만 가리키지 않는다. 사회학에서는 '생물학적인 성과 삶에서 인식한 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트랜스젠더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생물학적으로 남성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여성으로의 삶이 편한 사람들을 말한다.

여러분은 트랜스젠더를 만나본 경험이 있는가? 나는 미국에서는 만나봤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만나본 적이 없다. 한국에 트랜스젠더가 없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태어난 모습대로 살지, 왜 반대로 살려고 하는가?'라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이미 자신의 '성'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왜'라는 질문은 성립될 수 없다.

어떻게 젠더 문제를 종교와 연결시켜야 하는가? 기독교인들은 창세기 1장 27절을 근거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만 창조했기 때문에 트랜스젠더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성서를 근거로 트랜스젠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사람들의 논리에 따라 성서를 문자적으로 굳이 해석하면 레즈비언이나 양성애는 성서에 언급되지 않았으니 죄가 아닌 것이 된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동성애(homosexuality) 개념은 19세기가 되어서 독립된 개념으로 등장했다. 즉, 성서가 쓰인 시대는 물론 19세기 이전까지 동성애는 분명한 개념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남성 간의 동성애가 그

렇게 심각한 죄였다면, 왜 예수는 이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까?

예수는 혐오가 아닌 환대와 사랑을 말했다

예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 환대, 연민, 연대'라고 할 수 있다. 타자와 신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한 것임을 예수는 말과 행동으로 분명하게 전했다. '최후 심판'으로 불리는 마태복음 25장은 예수 정신을 분명하게 담고 있다.

최후 심판을 통해 구원과 영생의 길로 나아갈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지가 결정되며, 그것을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으로서 '해야 할 것'은 다음 여섯 가지였다. 타자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는 일, 목이 마를 때 마실 것을 주는 일, 나그네와 이방인을 환대하는 일,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는 일, 병들었을 때 돌보는 일,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는 일이다.

우리는 성서가 던지는 질문을 현재 몸담고 살아가는 세계 속에 연결시켜야 한다.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사랑이란 대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 예수는 종교 자체가 아니라 '내가 타자와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다. 예수 정신의 핵심을 담은 본문은 연민, 사랑, 배려, 환대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실천이라는 것을 '최후 심판'이란 강력한 말로 전한 것이다.

성서를 거론하며 자신과 성적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을 예수가 본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수는 모든 인간이 신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고귀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이웃은 물론 원수까지도 모든 타자들과 사랑과 연민, 환대를 나누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종교가 나아갈 방향은 혐오와 차별, 배제의 종교로부터 환대 그것도 급진적 환대의 종교로 거듭나야 한다. 연민, 사랑, 배려, 환대, 연대로 나아가는 기독교여성단체인 YWCA와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



2018 YWCA 여성평화순례가 펼쳐질 지리산 노고단을 탐방객들이 걷고 있다.(출처 국립공원관리공단)

현대사의 비극이 숨쉬는 지리산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부는 가운데 'YWCA 여성 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올해도 계속된다. 창립 95주년부터 100주년까지 비전수립을 위한 기념사업인 'YWCA 여성평화순례'는 2017년 한라산을 시작으로 100주년이 되는 2022년까지 해마다 지리산, 태백산, 설악산, 금강산, 백두산을 차례로 오르는 평화운동 프로젝트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 확산을 위해 북한, 중국, 미주동포, 북한이탈주민 등 한민족여성들이 모이는 올해는 YWCA가 그동안 세 차례 열었던 한민족여성대회를 계승해 '한민족여성과 함께하는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로 확대된다. 창립 96주년을 상징하는 96명의 평화순례자를 포함한 남북한 여성, 재외동포 등 200여명의 참가자가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지리산에 오른다. 여성이 주도하고, 한민족여성이 연대하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정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지난해는 평화의 섬 제주도 한라산에서 '4.3사건과 여성'을 주제로 아픈 역사를 평화인권의 가치로 만들어 낸 노력을 조명했다면, 올해는 지리산과 광주에서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을 딛고 평화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순례에 나선다.

지리산은 장구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피난처로, 은신처로, 수행처로 삼았고 언제나 그들을 따듯하게 감싸주었다. 핍박과 고통을 받던 민초들이 숨어들어 최후의 저항을 펼쳤던 장소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1960년대 사회 혼란기까지 50여 년간은 갈등과 전쟁, 애환이 뒤섞인 격동의 현장이었다. 빨치산과 군·경 토벌대의 전투 등 좌우 이념대립의 모습이 가장 극단적이고 압축적인 형태로 남아 있다.

지금은 역사를 기억하고 화해하는 생명의 산, 살림의 산으로 거듭나고 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생태계가 잘 보전돼 있으며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 3개 도에 걸쳐 있을 만큼 규모도 웅장하다. 정상 천왕봉은 백두산부터 이어진 백두대간이 남쪽으로 흘러와 만나는 봉우리로 멸종위기 동물을 포함한 수천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해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오월의 광주'에서 평화를 묻는다

한국 '민주화운동의 성지'로 불리는 광주는 역사적인

백보람

한국YWCA연합회 평화·통일담당 간사



2017 여성평화순례단이 한라산 정상에서 조각보를 펼치고 있다.(사진제공=여성신문)


고비마다 의병운동, 동학혁명, 광주학생독립운동, 광주 민주화운동 등 정의를 세우는데 앞장선 곳이다. 1980년 신군부와 계엄군에 맞선 광주 시민들의 광주민주화운동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세계 민주화 역사에도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주YWCA는 당시 시민군 지휘본부로 사용됐으며, 조아라 회장과 이애신 총무를 비롯해 광주YWCA 신험 김영철 참사 등이 지도부로 활약하며 전력을 다했다. 광주YWCA 신험 직원이던 박용준 열사는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마지막 진압에 맞서 광주YWCA에서 최후까지 광주를 지키다 숨졌다. 한국YWCA연합회가 창립된 해인 1922년 설립자 김필레 선생은 그해 11월 첫 번째 지역조직으로 광주YWCA를 만들었다. '광주의 어머니'이자 '광주민주화운동의 대모'로 불린 조아라 회장은 김필레 선생의 수피아여고 제자이기도 하다.

시대 아픔을 간직한 역사의 현장, 지리산과 광주에서 이뤄질 2018 여성평화순례 지리산편은 오는 10월 1일(월)부터 10월 2일(화)까지 1박 2일간 열릴 예정이다. 광주YWCA가 주관하는 이번 순례는 지리산 천왕봉팀과 노고단팀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번 지리산편 준비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길위의 평화포럼'을 열어온 평화포럼단은 지리산 여성평화순례와 함께 마지막 포럼을 진행한다.

마지막 날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간직한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한다. 국립5·18민주묘지에는 광주민주화운동에 적극 뛰어든 조아라 회장, 이애신 총무, 김영철 참사와 계엄군 총격에 세상을 떠난 박용철 열사가 잠들어 있다. 이어 '소심당(素心堂) 조아라기념관'을 찾아 평생 소외받는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여성지위 향상과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조아라 선생의 사랑·정의·평화 정신을 기린다. 97주년 여성평화순례를 위한 퍼포먼스를 통해 YWCA 100주년 비전을 이어가는 순서도 마련된다.

설립 초기 평화를 구하는 기도운동에서 시작한 YWCA 평화운동은 여성평화순례로 이어져 우리 사회에 평화인식을 확산하고 통일운동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해 왔다. 평화를 염원하는 남북한 여성과 재외동포들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 1994년 연변, 1996년 뉴욕, 2013년 연변에서 모두 세 차례의 한민족여성대회를 열기도 했다.

1년 전 한라산에서 열린 여성평화순례단의 바람이 닿은 것일까. 백록담 앞에서 낭독한 '여성평화선언문'의 요구사항이 하나씩 하나씩 이뤄지고 있다. YWCA 여성평화순례의 소망이 평화의 발걸음이 되어 한반도의 대립과 갈등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하루빨리 찾아오길 기대한다. 



평화, 용서가 먼저다

전우택 연세대 교수는 “평화협정은 근본적으로 용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형원

청주YWCA 일하고참여하는청년의집 회원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중부지역 대표

‘한민족여성과 함께하는 YWCA 여성평화순례 :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준비하고 한반도 평화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제4차 길위의 평화포럼이 7월 19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전우택 연세대 교수가 ‘평화협정과 평화의 사람들’을 주제로 강의한 내용을 요약해 실는다.

증오의 반대는 용서

대한민국은 분단되는 과정에서 민족간 이념갈등과 최악의 전쟁을 경험했다. 민족 전체가 동원된 학살과 전쟁이었다. 그래서 분단의 본질은 정치·군사적 측면보다 ‘증오’의 문제가 크다. 통일의 본질에 증오의 반대말이 들어오지 않으면 실질적 의미의 통일은 불가능하다. 증오의 반대는 ‘용서’다. 한반도 평화는 용서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통일문제를 경제적으로 접근하면 쉬워 보이거나 현실은 간단하지 않다. 남북이 협정을 진행할 때 나타날 사회저항은 우리 분노보다 북한이 남한에게 갖는 갈등의

골이 더 깊을 것이다. 남한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를 만나 악수하는 것보다 북한 지도자가 미국과 남한 대통령을 만나 악수하는 행위가 더 힘든 결정이다. 평화가 심리적으론 힘든 이유는 ‘용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은 용서와 밀접하다. 그런데 용서에 대한 오해가 있다. 첫째로 종교적·영적인 주제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용서는 종교와 영적 측면 없이 힘들다. 타인은 용서하기 힘들어도 자식에 대한 용서는 비교적 수월하다. 차원이 다른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묘사한다. 어린 자식을 통해 용서를 체험하기 시작한다.

둘째, 용서는 잘못된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와 뉘우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영원히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인생을 산다는 것은 용서를 배우는 것이다. 청소년기에 용서는 쉽게 되지 않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삶을 배우며 용서할 수 있게 된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마지막 했던 얘기 중 하나가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니 용서해달라”라는 것이었다.

셋째, 잘못된 일을 잊지 못한다면 용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죽어도 네가 한 일을 잊지 못해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은 용서에 대한 오해다. 잘못을 완벽하게 기억하는 상태에서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상대방을 ‘인정’하라

분노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남이 내 발을 밟았을 때 욕하는 감정처럼 동물적이고 자기 보호적인 본능적 분노다. 폭력과 상처에 나를 보호하려는 본능에서 유발돼 성찰이나 윤리적 개념이 개입되지 않는다.

둘째는 잘못된 행위에 도덕적으로 분개하는 성찰적 분노다. 본능을 넘어 원인과 정당성을 성찰하며 생기는 분노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사고원인, 공공기관과 청와대의 대응, 진실규명에 대한 조직적인 방해와 은폐에 사회는 분노했다. 자신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희생되었음에도 모두가 분노했던 이유는 성찰적 분노 때문이다. 정당하지 못한 사건에 분노하며 공적 가치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성찰적 분노는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셋째, 파괴적 분노다. 본능적 분노와 성찰적 분노가 지나치게 커지면 증오, 원한, 복수로 전이된다. 성경은 ‘복수는 하나님께 하신다’며 파괴적 분노를 엄격히 다룬다. 반종교적·반도덕적인 파괴적 분노는 용서가 불가능하다. 남북은 직접 당한 피해를 배로 갚아주겠다는 행위를 해왔다. 서로 분노를 가진 근거는 충분했지만 근거에 대한 확신 때문에 파괴적 분노로 넘어가진 않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의사도 극단의 갈등을 겪는 부부관계는 해결할 수 없다. 갈등 당사자들이 대화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인정’이 필요하다. 상대방을 가해자로만 생각하는 것을 넘어 서로 희생자라고 인정해야 하고, 상대방이 같은 사실에 다른 생각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며, 상대방도 충분히 고통 받았다고 인정해야 대화가 가능하다.

남북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조건이다. 북한도 전혀 다른 논리로 해방 후 역사를 해석하며 본인을 희생자로 본다. 남한이 북한도 충분히 고통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대화, 협상, 협정, 경제인프라 투자가 어렵다. 가해했던 북한 사람도 희생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통일의 핵심 중 하나다.

특정 시기나 지역의 사건이 인류정신사에 큰 의미를 갖게 될 때가 있다. 남아아프리카공화국 백인 정부는 80년간 탄압적인 인종차별을 펼쳤다. 그래서 흑인이 정권을 잡으면 백인을 탄압하는 것이 역사적 순리고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흑인은 정의와 용서를 새로운 시각으로 적용했고, 백인과의 공존을 택했다. 징벌적 정의를 버리고 회복적 정의를 선택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의 4분의 3은 제국주의 영토이거나 식민지였다. 식민지 대부분은 독립을 위해 무장투쟁을 했지만 인도는 평화적인 독립운동을 펼쳤다.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운동은 인도 독립운동 형식이었고, 남아공의 진실과화해위원회는 국가붕괴를 막는 고육지책이었는데 인류에 엄청난 영향을 줬다.

통일은 사상과 경제 격차를 넘어서는 도전이다. 경제 규모가 45배 이상 차이가 나는 나라와 군사점령이 아닌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다. 20세기 간디와 만델라의 위대한 역사가 있다면 21세기 인류의 정신사적 도약을 만들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은 한반도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다.

우리가 인류에 영향을 미칠 일이 하나 남았다. 우리 역사 속 슬픈 과거와 고통이 이제는 엄청난 도약을 만들 발판이 될 것이다.



한국YWCA 연수팀과 아르메니아YWCA 실무자들이 아르메니아YWCA 회관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김상은

한국YWCA연합회 탈핵생명담당 간사

한국YWCA연합회 청년 실무활동가 4명은 6월 중순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일대로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아픔과 고통의 길을 발로 뛰다'라는 주제의 청년순례를 다녀왔다. 이 과정에서 경유지인 폴란드와 조지아 인근 국가 아르메니아의 YWCA를 각각 방문해 한국 YWCA 운동을 알리고 공동 현안을 나눴다.

폴란드YWCA, 탈핵운동을 시작하다

인구 3,850만 명의 폴란드에는 여성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2016년 보수정권의 입신중절(낙태) 전면금지법 추진에 폴란드 여성들이 검은 옷을 입고 파업에 나선 '검은 시위'는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페미니즘 운동의 상징이 됐다.

1918년 창설된 폴란드YWCA는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중단됐다가 민주화 직후인 1991년 재건됐다. 폴란드YWCA의 규모는 아직 크지 않았다. 정부가 시민단체에 특별 임대료를 세우는 건물에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입주해 있고, 폴란드 시민사회연대(Federation of Education Initiative)에 소속돼 있다. 지역사회 여성들의 자치활동과 청년 여성의 지도력 향상을 지원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청년 여성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폴란드YWCA의 관심사는 탈핵운동이다. 한국

YWCA 연수팀 방문을 흔쾌히 환영한 폴란드YWCA는 오히려 한국 탈핵운동을 소개하는 발표를 부탁했다. 탈핵운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에서도 한국YWCA 탈핵운동 이야기를 함께 듣고 싶다고 요청해왔다. 6월 15일 폴란드 YWCA를 찾았을 때 사무실에는 시민원자력감시(Civil Nuclear Monitor)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의 마르신 하렘브스키(Marcin Harembski)씨도 도착해 있었다.

그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핵밀집도 국가인 것과 잇따른 지진 등으로 핵발전소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것뿐 아니라 시민들의 활발한 탈핵운동에 힘입어 새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채택하고 대통령이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신규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 등을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 한국의 탈핵운동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많은 자료를 찾아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폴란드는 에너지 발전비중에서 석탄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 노후한 화력발전소를 대체하기 위

해 정부가 핵발전소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핵발전소가 없던 폴란드에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는데도 시민들의 관심이 낮아 탈핵운동을 시작하려는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은 고충이 크다고 토로했다.

탈핵 이슈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그들의 고민이자 화두였다. 한국YWCA가 2013~2014년 탈핵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때도 같은 고민을 했기에 그들의 어려움이 더욱 공감됐다. 우리는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을 소개했다. 2014년 후쿠시마 핵사고 3주기를 기점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전국에서 캠페인을 벌이며 시민들에게 핵발전소의 위험을 알리고 관심을 이끌어낸 과정을 설명했다. 한국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탈핵운동 사례와 더불어 지역과 분야를 망라한 여러 단체들이 탈핵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연대활동을 꾸준히 벌여온 노력도 소개했다.

폴란드YWCA는 탈핵문제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고, 앞으로 폴란드 시민단체들의 탈핵운동에 한국 YWCA도 적극 연대할 것을 약속하며 이날 만남은 마무리됐다. 며칠 뒤 조지아로 이동했을 때 폴란드YWCA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다가오는 이사회에서 폴란드YWCA 운동계획으로 탈핵운동을 시작하자는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이었다.

아동과 여성을 위해 힘쓰는 아르메니아YWCA

아르메니아YWCA는 조지아(그루지야) 국경에 인접한




폴란드YWCA 실무자들과 한국YWCA 연수팀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타부시주 노엠베르얀(Noyemberyan)에 있다. 수도인 예레반에서 차로 3시간 가량 떨어져 있어 다소 낙후된 지역은 1988년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던 곳이다. 지진으로 황폐해진 마을의 아이들을 돌볼 시설이 전혀 없던 이곳에 2000년 YWCA가 세워졌다. 아동교육과 청소년·청년들의 역량강화 활동을 시작했고, 지역 여성들의 생계유지와 경제자립을 돕기 위한 봉제기술, 수공예 등 직업훈련을 펼쳤다.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해 운동시설도 마련했다.

인구 300만명의 작은 나라인 아르메니아는 러시아, 터키,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등에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외세침략과 분쟁에 오래 시달려온 역사가 한국과 닮은 점이 많았다. 1991년 소비에트연방에서 독립했지만 아제르바이잔과 아직도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어 국가간 평화에 관심이 높았다.

특히 남북관계에 깊은 관심을 보여 한국YWCA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온 평화운동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멀리서 온 우리를 환영하는 아르메니아YWCA 유치원 어린이들의 노래공연과 활동가들이 집에서 따온 과일, 직접 만든 전통 빵과 음식으로 푸짐하게 반겨준 환대가 기억에 남는다.

같은 목적 아래 각 나라에서 필요한 운동을 펼치고 있는 다른 국가의 YWCA를 방문하고 비전과 자매애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국제조직인 YWCA의 장점이자 특권이다. 이 순간에도 세계 120개국에서 국가와 지역을 살리기 위해 쉬지 않고 힘쓰는 YWCA운동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믿는다. 



폴란드YWCA 실무자와 시민원자력감시 활동가에게 탈핵운동을 소개했다.



십자가가 된 낮은 땅의 어머니

신미희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팀 부장

하나님의 딸로 어두운 사회에 빛을 비추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을까라는 심정으로 한평생을 사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독교의 참의미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를 위하여 희생, 봉사하는 실천적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1989년 3월 25일 회수 기념식)

기독교 시민운동가로, 여성운동가로, 민주운동가로, 인권운동가로, 사회복지운동가로 평생을 보낸 조아라 선생. 광주YWCA 소심당조아라기념사업회는 7월 6일(금) 오후 2시 광주시 양림동에 자리한 ‘소심당조아라기념관’에서 제15주기 추모식을 열고, 그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조아라 선생의 평생 일관된 관심은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였다. 1912년 태어나 2003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하나님의 정의로운 뜻’을 실천하는 저항의 삶을 살았다. 해방 이전에는 잃어버린 주권회복과 민족독립을 위한 저항이었고, 해방 이후로는 독재체제의 장기집권에 대한 저항이었다. 100년 가까운 격변기를 가장 아픈

현장에서 여성으로 살아낸 것이다. 소설가 문순태는 “광주의 어머니, 한국의 어머니, 민주화의 어머니까지도 넘어서 낮은 땅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이날 추모식은 그 자체가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여성의 역사였던 그의 삶과 정신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이옥식 소심당조아라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사회를 맡은 1부 추모예배는 기도, 성경봉독, 광주YWCA 합창단의 찬양, 주제설교로 진행됐다.

최흥진 호남신학대학교 총장은 ‘바울의 신앙과 정신’을 주제로 한 설교에서 “우리는 바울이 있어서 복음 안에서 참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조아라 선생의 희생과 정신이 있어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총장은 ‘복음, 하나님의 의(義) 믿음’이 잘 나타난 로마서 1장 16-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조아라 선생의 삶을 이어받아 우리 모두 정의와 평화가 한층 날개를 펴는 역사를 이뤄나가는데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왼쪽)과 이옥식 소심당 조아라기념사업회 이사장이 기록 사진을 보고 있다.



YWCA를 비롯해 광주지역 기독교,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추모식에 참석해 조아라 선생의 뜻을 기렸다.

역사의 한복판에서 정의를 지키다

2부는 기념강연으로 진행됐다. 이옥식 소심당조아라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인사말,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의 추모사, 박석무 전 국회의원의 강연이 이어졌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조아라 선생을 알고 지낸 박석무 전 의원은 ‘민주·인권운동가로서 조아라 선생’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5.18광주민주화운동은 물론이고 그 이후까지 역사의 한복판에서 언제나 청년들을 이끌고 격려해준 조아라 선생의 따뜻한 지원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검소하기 이를 데 없던 조아라 선생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민주화운동에 앞장서는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애정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는 일화를 전했다. 언제나 자식이나 손자처럼 밥을 사주고, 구속자들에게 영치금을 넣어주고, 단체들에 사무실을 내어주고, 행사마다 회비를 쾌척해주며 “우리가 희망과 꿈을 버리지 못하는데 큰 기둥이 되어주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그 포악하고 잔인했던 유신과 5공화국 독재시절에도 한 치의 양보 없이 동면대결의 국면마다 언제나 앞장서고 선두에 서서 이끌어주셨다”면서 오

늘의 ‘의로운 광주’가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정의를 향한 조아라 선생의 뜨거운 사명감은 “YWCA가 양심이 되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받은 달란트의 실패감으로 당혹감을 감출 길이 없다”는 고백에서도 잘 드러난다. 기독교 기관이 역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라는 조아라의 고백은 이 시대 기독교 기관으로서 YWCA의 목적을 다시 깨닫게 한다.

참석자들은 국립5.18민주묘지로 이동해 조아라 선생의 묘소를 참배하면서 이날 추모식을 마무리했다. 소심당조아라기념관 마당에서는 조아라 선생의 일대기를 기록한 활동전과 ‘조아라 캐릭터’ 손거울 만들기 체험행사도 진행됐다.

소심당조아라기념사업회는 조아라 선생의 고귀한 정신이 광주지역 사회를 비롯해 전국에 잘 계승되도록 일대기를 그린 연극도 공연한다. 광주YWCA가 2017년 95주년을 기념해 처음 무대에 올린 ‘티 없는 아름다움, Beautiful’를 올리는 7월과 11월, 수피아여고 강당과 호남신학대 강당에서 선보인다. 

소심당(素心堂) 조아라(1912~2003)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평생을 여성운동과 민주화, 인권운동에 헌신했다. 1933년 백청단 사건으로, 1937년 수피아여고 신사참배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수피아여고 시절 김필례 선생을 만나 인연을 맺은 광주YWCA에서 소천할 때까지 활동했다. 전쟁고아들을 보살피다 1952년 성빈여사를 설립했다. 1974년 목요기도회를 열어 민주인사 석방과 자유수호를 위해 싸웠다.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구속자와 부상자를 돌보는데 매진하는 등 하나님이 주신 삶과 소명에 충실하게 살았다. (자세한 내용은 2쪽 ‘한국YWCA 100대 보물찾기’ 참조)



YWCA 연수단이 이탈리아 볼로냐 돌봄서비스 사회적협동조합 '카디아이'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필자이다.

장옥현

성남YWCA 사무총장

한국YWCA연합회 돌봄과살림위원회는 7월 8일(일)부터 18일(수)까지 가사근로자법 정착지원 연구조사를 위해 돌봄서비스 선진국으로 꼽히는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현장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연수에는 이은영 돌봄과살림위원장을 비롯해 YWCA 최초의 돌봄과살림협동조합 설립을 주도한 부천YWCA 최순영 부회장, 제2호 돌봄과살림협동조합을 만든 성남YWCA 장옥현 사무총장, YWCA복지사업단 차경애 이사장, 표대중 노무사 등 4명의 위원과 실무자 2명이 참가했다.

돌봄서비스는 사적 영역이 아니다

가사서비스는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서비스로 자리잡았지만 비공식 노동으로 취급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저임금과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환경 등에 시달리고 있다. 1966년 한국에서 처음 시간제 가정부를 도입해 돌봄서비스 직종 개발과 직업훈련을 주도해온 YWCA는 오랫동안 가사노동자 권리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2000년대 가사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YWCA는 2011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안' 제안을 시작으로 가사서비스 법제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에서 '가사근로자법 정착지원을 위한 제공기관·이용자 측면의 활성화 방안' 정책과제를 의뢰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돌봄과살림위원회는 선진사례 조사를 위해 가사근로자 보호와 돌봄시장이 활성화된 유럽의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현장방문을 하기로 했다.

YWCA 차원의 돌봄과살림협동조합을 시범으로 운영하는 성남YWCA 실무책임자로서 사명감과 유럽연수에 대한 설렘을 안고 연수 길에 올랐다. 프랑스에 밤늦게 도착해 다음날 아침 일찍 벨기에 일정을 위해 기차로 이동했다. 벨기에 돌봄서비스 시장은 산업고용 부문에서 네 번째로 중요하다고 한다. 민간노동시장 중개인과 HR서비스(인적자원) 제공업체의 연합체인 페더곤(Federgon)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만난 법률담당관은 벨기에 가사서비스 바우처(이용권)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성공적이라며 강한 자부심을 보였다. 유럽에서는 벨기에가 이 시스템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벨기에 가사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주도한 일자리 창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연방정부 계획으로 2004년 1월 1일 발효된 '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서비스의 전체 이용요금 중 사용자 개인부담보다 더 많은 비용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사용자는 적은 비



벨기에 Federgon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부는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물론 전체인구 1,100만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지만, 엄청난 지원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방문한 Federgon의 사업목적은 저숙련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실업급여의 지출을 줄이고 돌봄 서비스를 공식적인 산업으로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맞벌이 부부는 일과 가사, 여가를 양립할 수 있도록 돕고, 공식적인 돌봄시장을 양성해 블랙마켓(미신고된 암시장)보다 가격을 더 낮게 책정해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가사노동 공식화, '일자리'를 만든다

프랑스에는 보편적서비스 고용바우처 시스템인 CESU 제도(le chèque emploi service universel)가 있다. 민간 시민이 개인의 서비스와 인력에 대한 비용을 더 쉽게 지불하도록 이용절차를 간단히 만든 시스템이다. 현지에서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을 섭외해 인터뷰했다. 그는 가사근로자의 급여명세서까지 보여주며 자세하게 설명해줬다.

프랑스에서는 대부분 개인이 고용주가 되어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고용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CESU 인터넷시스템에 등록해 신고하면 사회보험비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모두 납부한다. 고용주는 훨씬 많은 비용을 내지만 조세감면이나 소득공제 등 혜택을 받는다.

구인방법은 전통적으로 건물관리인이 하거나 아는 사




이탈리아 로마나주 협동조합연합회를 찾은 연수단

람이 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는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CESU시스템을 활용한다. 민간용역업체를 이용하면 세무신고 등 번거로움이 해결되지만 비용부담이 커져 많이 이용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다음으로 협동조합 전통이 강한 이탈리아로 향했다.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규모와 수는 한국에 비해 월등히 컸다. 사회적협동조합이 90%를 차지하고, 정부에서 위탁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케어(care)' 개념에서 시작한 볼로냐 돌봄서비스 사회적협동조합 '카디아이(Cadiai)'는 어르신, 아동·장애인, 안전교육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카디아이가 운영하는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했을 때 한국YWCA연합회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 '은학의집'이 떠올랐다.

모데나 지역의 로마나주 협동조합연합회를 방문해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징을 들었다. 크게 돌봄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다고 한다. 마피아의 나라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인지 정부가 구축된 마피아들의 토지를 협동조합에 위탁해 관리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고자 토지를 활용해 와인, 올리브, 치즈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벨기에와 프랑스, 이탈리아 세 나라는 각각의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한국에 특정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문화 차이로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한국 사회에 적용 가능한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그보다 선행될 것은 가사노동을 공식화해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보완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사노동자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 

북유럽 숲에서 만난 기독교 생태교육 현장



핀란드 뉘슬라에 있는 라헬란테르투 보육센터에서 숲체험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글 정순영 광주YWCA 어린이집 원장
사진 조규봉 연수가이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한 YWCA 어린이집 원장 해외연수가 6월 6일(수)부터 14일(목)까지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에서 진행됐다. 12개 회원YWCA(거제, 고양, 광주, 마산, 목포, 부산, 부산 강서, 세종, 인천, 전주, 진주, 창원, 청주) 어린이집 원장과 연합회 실무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난민, 다문화아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

핀란드 헬싱키를 경유해 노르웨이 오슬로에 무사히 도착했다. 문화체험으로 비겔란 조각공원을 방문했다. 조각가 비겔란이 13년 동안 인물 212명을 조각한 작품을 기증해 전시한 공원이다. 노르웨이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들과 교사들이 자연을 관찰하며 환경이 좋은 조각공원을 산책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우리나라도 자연 친화적이고 예술적인 공원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수백만 년 빙하가 침식하며 장관을 만들어낸 송네 피오르드도 방문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 자연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오감으로 느끼며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폭포는 발전소로 활용되고, 청정의 물이 있는 깨끗한 호수에는 그림자가 보였다. 노르웨이 어린이 교육은 부모의 경제력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

다. 특히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취학 전 선행학습도 놀이방식으로 진행된다. 함께 어울리는 놀이를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며 독립심과 사고력, 사회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스웨덴에서는 릴라 텐스타 공립유치원을 방문했다. 스웨덴 난민지원 정책으로 70여개국 110여명의 다문화 아동들이 다니고 있는 곳이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언어소통이 가능한 교사를 채용한 것도 인상 깊었다. 교육비는 시청에서 부모의 수입에 따라 지원한다. 소득이 많은 부모는 교육비를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낮은 가정은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각 반에 교육학자 1명, 보조교사 2명이 근무하도록 시청에서 지원하는데 참으로 부러운 정책이었다.

핀란드 로우히유치원도 방문했다. 로우히유치원 환경은 미로찾기처럼 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유치원 내부

공간을 언제나 자유롭게 이동하고 활동했다.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게 돕고, 자율성과 독립심을 기르기에 적합한 구조였다. 유치원 운영시간은 아침 6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일찍 등원하는 아이에게는 조식을 주고, 늦게 귀가하는 아이에게는 과일 간식을 더 준다. 교육에서는 창의성을 길러주는데 주력하고, 영유아들이 스스로 주도적인 학습을 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유아학교는 주로 자연을 끼고 있는 지역에 설립한다. 아울러 친환경 숲체험과 야외활동은 비나 눈이 올 때도 진행한다. 자연 환경에 근접한 교육환경이 부럽기만 했다.

북유럽의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

마지막으로 핀란드 뉘슬라 지역에 있는 라헬란테르투(Lahelanterttu) 보육센터를 갔다. 지역의 거점 보육센터로 5주 이상 방학할 때 아동을 보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다. 부모의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교사가 수업내용을 기획하고 만드는 자율성을 지지하고, 교사와 아이의 교감에 중점을 둔다. 숲체험도 매일 진행하고 있다.


마침 우리가 방문한 시간에 프리스쿨의 만 5세 아이들 14명이 숲체험 활동을 하는 시간이라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며 관찰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숲의 습지를 관찰하며 자연물로 이름쓰기, 흙놀이 등을 하고, 아이들이 태블릿PC로 자연의 변화모습을 사진으로 찍으며 교사와 이야기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찍은 사진을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우리도 활용하면 좋을 듯하다.



핀란드 로우히유치원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스웨덴, 핀란드는 장애아나 자폐아가 있는 경우 어린이집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수교사를 배치한다.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경계선에 있는 지연 영유아까지도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원아상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 유아교육 제도도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영유아 각 반에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영유아와 부모, 교사들이 복지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뒷받침해주는 재정과 제도 지원이 보완되었으면 한다. 무엇보다 한국 유아교육 정책은 높은 교육수준에도 많은 여성들이 경력단절과 육아부담, 저출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랫동안 산적한 숙제를 해결할 시스템이 빠른 시일 안에 구축되길 희망한다.

북유럽 국가의 유아교육 현황을 듣고, 유아교육 서비스 관리체계 정보를 얻고, 숲체험 활동을 직접 보며 YWCA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방안을 깊이 고민했다. 각 나라의 생활모습과 문화유적, 자연경관 등을 보며 2009년부터 전국 YWCA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숲생태 활동이 공교육 선구자로 불리는 북유럽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연수를 통해 YWCA 어린이집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생태교육 모델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어린이집 원장 해외연수를 할 수 있게 관심 갖고 기도해주고 협력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스웨덴의 릴라 텐스타 공립유치원을 방문했다.



문윤희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팀 간사

경기지역을 시작으로 4년마다 열리는 YWCA 지역 회원대회의 막이 올랐다. 7월 17일(화) 안양 연성대학교 연곡문화센터에서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 세상’을 주제로 2018 경기지역 YWCA 회원대회가 열렸다. 안양YWCA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고양, 광명,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의정부, 파주, 평택, 하남YWCA 회원들과 연합회 활동가 등 530명이 참석했다. 이어 중부지역(8월 29일), 북부지역(8월 30일), 동부지역(9월 5일), 서부지역(10월 23일) 순서로 다음 회원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모두가 함께하다

김성아 수원YWCA 회장의 사회로 개회예배가 시작됐다. 김효숙 의정부YWCA 부회장이 “정의·평화·창조질서가 보전되고, 성평등 세상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길” 기도했다. 안양YWCA 중창단이 특송으로 ‘원혜’를 불렀으며, 김윤 시온감리교회 담임목사가 ‘십자가의 전달자’를 주제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십자가의 의미는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이라며 “지배적 소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수를 억압하는 자이니, 창조적 소수자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YWCA 깃발 입장으로 개회식의 막이 올랐다. 경기지역 12개 YWCA를 대표하는 기수들이 단상에 오르며 깃발을 흔들었다. 박동순 안양YWCA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경기지역위원장인 정성옥 안양YWCA 회장이 환영

사로 회원들을 맞았다. 정 위원장은 “기독교여성들은년부터 성인지 관점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일상에서 의식과 행동을 바꾸는 성평등운동가로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경기지역 회원대회에서 성평등운동의 방향을 고민하고 앞장서서 실천을 결의하는 것에 감사드리며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강대호 파주YWCA 회우, 이지아 남양주YWCA 회원, 심명자 부천YWCA 증경회장이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YWCA 회원결의문’을 낭독하며 다짐한마당을 열었다. 경기지역 YWCA 회원 1만 8천여명을 대표해 모인 참가자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 대표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과 차별에 반대하며 피해 여성과 연대하고 △저임금, 성차별적 노동현장에 저항하며 여성 노동의 가치를 회복하고 △성평등 문화 확

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캠페인 등을 펼칠 것을 결의했다.

김흥미리 여성주의 연구활동가가 ‘모두가 행복한 정치의 장으로 성(sexuality) 초대하기’ 강연을 했다. 그는 “남성은 계약의 주체이고, 여성은 계약의 내용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한 계약을 파기하게 만드는 것은 가열찬 투쟁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정치”임을 강조했다. 또한 “YWCA가 먼저 목소리를 내고, 나아가 사회적 약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도록 장을 열어 저항의 출발점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성평등, 우리 손으로 풀어낸다

이경애 고양YWCA 회장의 사회로 나눔한마당이 이어졌다. 연성대학교 치어리더단 금빛새, 헬렌킴 경기오페라단 대표의 공연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곳곳에서 앵콜과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회원들의 공연도 펼쳐졌다. 고양YWCA는 ‘우리는 평등한 Y가족’ 합창을, 파주YWCA는 ‘행복한 파주댁’ 개사곡과 춤을, 부천YWCA는 마술사 회원 제니가 ‘양성평등 매직쇼’를 선보였다. 수원YWCA는 ‘We Story’ 개사곡을 합창했고, 안산YWCA는 드론 군무쇼 ‘뽀뽀’로 눈길을 끌었다. 의정부YWCA 직원합창

단은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성평등’을 주제로 노래했다.

끝으로 불평등·차별문화 철폐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차별문화인 방탄 유리천장, 성별 임금격차,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혐오, 성폭력·가정폭력, 가부장문화가 적힌 현수막을 찢으며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고 다짐했다.

이번 경기지역 회원대회는 모두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12개 YWCA 실무자들이 준비회의를 열어 역할을 나눴고, 부채 제작부터 선물 준비, 피켓 만들기, 진행 등을 분담했다. 결의문 낭독 대표자도 성별과 연령을 고려해 선정했다. 6개 YWCA의 이색장기로 ‘성평등’ 주제를 풀어낸 것도 인상 깊었다.

YWCA 회원들은 4년마다 지역별 회원대회를 열어 한 자리에 모인다. 그리고 YWCA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세상을 위해 힘쓰는지 비전과 사명을 확인한다. 회원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격려하면서 소속감과 자긍심도 키운다. 회원YWCA가 치열하게 운동하는 현장을 통해 더 큰 세상을 바라보기도 한다. YWCA는 회원과 지역과 회원이 있기에 존재한다. 서로를 확인하고 연대하는 YWCA 여성들의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다.



파주YWCA 회원들이 개사곡에 맞춰 춤추고 있다.



부천YWCA 제니 회원(왼쪽)은 마술쇼를 펼쳤다.



퍼포먼스로 성별 임금격차가 적힌 현수막을 찢고 있다.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경기지역 YWCA 회원대회를 마쳤다.



김예은·김솔지
부산YWCA 간사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일본 시모노세키(下関)와 부산(釜山)을 오가며 일본 정부에 당당히 맞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그들을 위해 함께 싸웠던 사람들의 뜨거운 이야기를 담은 영화 '허스토리'. 6년간 23번의 재판 끝에 시모노세키 지방법원은 '위안부' 피해자 3명에게 각 30만엔씩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공식사죄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일본을 발각 뒤집을 만큼 의미 있는 결과였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관부재판'의 실화 속 주역 김문숙 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 회장(사진)을 만났다. 올해 92세가 된 지금도 매일 출근하며 '민족과 여성 역사자료관'을 지키고 있다.

영화에서 선생님 역할을 맡은 김희애씨가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실제 모습과 비슷하지요?

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많이 연구했다고 들었어요. 사투리도 연습하고 성격도 닮으려고 애썼다고... 제가 원래 활발한 사람이예요. 당시엔 더 적극적이었죠. 영화에서는 좀 더 똑똑하고 멋지게 나왔어요(웃음). 영화에 나온 일본군 '위안부' 출신 가사도우미나 주인공 친구인 신사장, 제일동포 변호사 등 모두 실제 인물이에요.

영화가 조명한 진짜 주인공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입니다. 그분들을 돕게 된 사연이 궁금합니다.

영화에서는 '기생관광'을 잠깐 다뤘는데, 저는 부산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여행사 대표였어요. '기생관광'을 반대하니 일본인들이 "전쟁 때 몸 팔러 다닌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돈도 많이 주잖아" 하는 걸 듣고 일본군 '위안부' 존재를 알게 됐죠. 1965년 한일협약을 맺을 때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덮는 바람에 1990년대까지도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부산여성

경제인연합회장이었던 저도 몰랐으니까요. 실상을 알고 그냥 있을 수 없었죠.

“같은 시대에 태어나 나만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부끄러워서 그런다”는 대사가 실제 선생님 말씀이었다면 서요?

정말 부끄러웠죠. 근데 나보다 우리 할매들이 더 부끄러웠어요. 안 그래도 되는 사람들인데... 일본에서 '몸 팔러온 사람들'이라고 선전하니까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집에서 구박받고 결혼도 못하고 그랬어요. 1991년쯤 겨우 250분 정도 찾았어요. 결혼한 분들은 '위안부'였다고 말도 못하던 때라 더 많았을 텐데...

관부재판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일본군 '위안부' 소송에서 일부지만 유일하게 이긴 재판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요?

그래도 시모노세키(관부) 재판장이 사람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할매들이 어린 나이에 속아서 끌려온 얘기를



'관부재판'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소송 가운데 유일하게 일부 승소한 재판이다.

들으면서 눈물이 그렇게 흐르고... 일본인 교사는 부탁하지 않았는데 증언하겠다고 나섰고(영화에서는 극적인 연출을 위해 처음에 거절한 것으로 나오지만), 많은 도움이 됐어요. 일본이 책임졌어야 할 일을 안 했으니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그 재판장은 좌천됐어요. 이후 일본은 위안부 소송을 한 건도 받지 않더라고요.

일본에서 23번의 재판을 하면서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지요?

어려움이 참으로 많았어요. 일본 영사관이 비자를 내주지 않아 항의해 겨우 받기도 했고, 할매들이 자기 얘기를 제대로 못하는 것도 힘들었죠. 나한테는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막상 재판장이 물어보면 너무 분해서 눈물부터 나니까 말을 못했죠. 재판과정 자체도 힘들고...

실화를 다룬 영화인만큼 무엇을 강조하길 바랐나요?

'위안부' 할머니들이 '속아서 끌려왔다'는 것과 '일부이지만 일본이 잘못을 인정한 적이 있다'는 두 가지는 꼭 넣길 바랐어요. 혹여 일본군한테 당하는 장면이 들어간다면 너무 보기 힘들 것 같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하던 대로 만들어줘서 참 고마워요.

선생님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록을 모아 사비로 '민족과 여성 역사자료관'을 세웠고, 마지막 재산까지 털어 시민공원과 일본 총영사관 앞에 평화의소녀상을 만



김문숙 회장(김희애씨 역할)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에 눈을 뜨면서 여성운동에 뛰어들게 된다.

드는데 앞장섰는데요. 그 절박함은 어디에서 나왔나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없으니 사비를 털어서라도 하는 것이죠. 일본 제국주의가 얼마나 악랄하고 못됐는지 알려야 해요. 특히 '위안부'는 몸을 팔러 간 게 아니라 속아서 간 피해자라는 걸 모두 알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사죄와 배상은커녕 지금도 일본군 '위안부'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위안부'를 포함한 식민 지배에 대한 과오를 사과해야지요. 이 방법은 평화적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일본이 다시금 전쟁을 일으키게 하면 안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여성후배 특히 여성단체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YWCA는 여성단체의 기강(紀綱)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기독교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많았어요. 이름을 알린 여성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지요. 분명한 건 기독교성들이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YWCA는 선배 기독교성들의 정신을 본받아 꾸준히 활동하는 단체가 되길 바랍니다.

후원안내
하나은행 315-910019-34805 김문숙(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
부산은행 101-2017-9120-03 (사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



작가가 대동강변에서 우연히 만난 갓 결혼식을 올린 부부. 비로드 꽃무늬 한복을 입고 발그레 물든 뺨으로 뒤돌아보는 신부의 미소가 수줍다. 한복 사진은 사진집 표지로도 쓰였다.

박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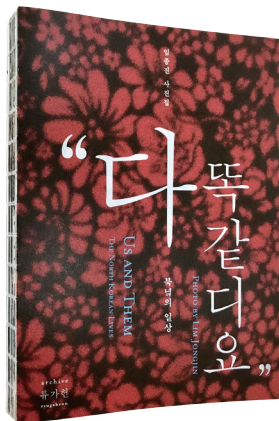
갤러리 '류가헌' 관장

‘우리네, 우리 것’에 담긴 민낯

갓 결혼식을 올린 신부가 상기된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본다. 짧은 연인이 손을 잡은 채 강변을 걷고, 가방끈을 비스듬히 맨 여자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간다. 어디에나 있을 법한 흔한 풍경이다. 다만 다른 것은, 신랑신부가 걷고 있는 강변이 대동강변이고 닿을락 말락 손을 잡은 연인들은 평양의 대학생들이라는 점이다. 아이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가는 아빠는 군복 차림의 ‘북한군’이다. 이 사진 이미지들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북한의 ‘이미지’를 뒤흔든다.

서울 청운동 사진위주 갤러리 ‘류가헌’에서 열리고 있는 북녘 사진전 <사는 거 다 똑같디요>. 북녘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찍은 사진 100여 점이 7월 31일(화)부터 9월 9일(일)까지 전시된다. 사진전 개막과 동시에 같은 제목의 사진집(왼쪽)으로도 출간되었다.

사진을 찍은 이는 임종진 작가다. 그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사진기자 자격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북녘 땅을 밟았다. 당시가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평화로운 분위기였다고는 해도, 북은 사진에 민감했다고 한다. 그런데 임종진은 처음부



사진집 “다 똑같디요”
임종진 / 류가헌 / 40,000원



뒤어노는 아이들, 하갯길에 만난 여학생들, 김일성종합대학생 장류진씨(왼쪽부터 시계방향) 모습을 담았다.



터 “나는, 우리가 서로 공감할 만한 무엇을 찍고 싶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이질적이거나 낙후된 북한의 좋지 않은 이미지들만 보도되던 시절이었다.

평양의 일상과 그 속에 담긴 ‘우리네, 우리 것’을 사진에 담으려는 그에게 유례없이 자유로운 촬영 허가가 떨어졌다. 평양 시내 곳곳을 별다른 제지 없이 다니며, 정치나 이념에 의해 삭제되거나 왜곡되지 않은 그들의 민낯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그는 고무줄 놀이하는 아이들, 장을 보는 어머니, 자전거에 아이를 태우고 가는 아버지 등 특별한 것 없는 모습들에 취해 ‘카메라가 춤을 추었다’고 회고한다. 그동안 볼 수 없던 북녘 동포들의 일상을 따뜻하고 섬세한 시선으로 담아낸 수백 점의 사진이 이렇게 해서 얻어졌다. 사진마다 이미 우리는 잃어버린 듯한 어떤 정서와 순정한 빛이 20년 전의 버네클러(양식 또는 관행)와 함께 가득하다.


이제야 만나는 ‘오늘의 사진’

이 사진들을 보기까지, 아니 그들을 이런 눈으로 보기까지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렸다.

사진가는 두 번째 방북 때 북측 안내원들로부터 “왜 우리 늙은 장교 동무를 동네 아저씨처럼 찍었느냐”는 투정과 웃음 섞인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빈곤과 폭압적 체제라는 단면적 시선을 거두고 한 민족의 정서적 일치점을 찾고자 하는 그의 한결같은 관점은 계속된 방

북취재를 통해 신뢰로 이어졌다. 후에 자신들의 삶을 ‘민족적 입장에서 바라본 사진가’로, “김정일 위원장이 남녘 사진기자로서는 유일하게 림선생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했다.

20년 전 평양의 일상을 담은 이 사진들은 시간의 개념을 뛰어 넘어 남과 북 사이 가로놓인 ‘단한 정서의 길’을 열어준다. 그런 점에서 ‘어제의 사진’이 아니라 이제야 만나는 ‘오늘의 사진’이다. 사진가에게 이번 전시를 제안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고 왜곡된 인상을 바꾸는 데서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한반도를 꿈꾸는 지금의 시점에서 남과 북, 서로를 정서적으로 보다 가깝게 이을 사진들이 것이다. 1997년부터 20년 넘게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북한어린이돕기를 해오고 있는 YWCA의 평화를 위한 활동과도 그 맥이 닿아 있다.

“정책적인 통일은 위에서 정치가 한다면, 정서적인 통일은 밑에서 민간과 예술이 해야 한다”는 것이 사진가 임종진의 생각이다. 그는 자신의 이 사진들이, 그렇게 쓰이기를 바란다. 또한 언젠가는 평양에서도 이 사진들이 전시되기를 꿈꾼다. 그것이 이루지 못할 ‘꿈’만은 아닌 것 같은, 2018년 여름이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

2018년 8월 28일 (화) 오후 1시-6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

일정

사회: 이만우 팀장(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13:00-13:30	등록
	축사 · 문희상 국회의장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말 · 정춘숙 공동대표 의원(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 김삼화 공동대표 의원(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 권미혁 공동대표 의원(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 남인순 의원(前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 이내영 처장(국회입법조사처) · 송병국 원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영 이보내 대사대리(주한유럽연합대표부) · 조현욱 회장(한국여성변호사회) · 김지연 이사장(사단법인 두루) · 한영수 회장(한국YWCA연합회) · 최영희 이사장(ECPAT Korea 탁틴내일) · 서순성 단장(심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13:30-14:00	
	좌장: 김지원 변호사(現 푸르메 이사장/ 前 청소년보호위원회 초대위원장) Session 1: 국가별 보고 1. 유럽연합(Dr. Joëlle Hivonnet -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대리) 2. 스웨덴(Per-Anders Sunesson - 스웨덴 외교부 반인신매매대사) 3. 영국(Sarah Champion - 노동당 국회의원) 4. 한국(조진경, Cho Jin Kyeong-심대여성인권센터 대표)
14:00-16:10	
16:10-16:20	쉬는 시간
	Session 2: 토론 1. 김현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2. 김지연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4. 안수경 위원장(한국YWCA연합회 Y-틴위원회) 5. 이현숙 대표(ECPAT Korea 탁틴내일) 6. 조주은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7. 여성가족부 8. 법무부
16:20-17:30	
17:30-18:00	질의응답(플로어 포함 전체 토론)

관련 문의: 심대여성인권센터 (김모란 상담원 02-2633-1318)



연합회 소식

월례아침기도회



월례아침기도회가 Y아카데미위원회 주관으로 7월 5일 (목)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Y아카데미위원회가 특송 '시선'을 불렀고, 박찬석 미국 우스터대학 종교학과 교수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주제로 설교했다.

Y-틴 전국회원대회



2018년 Y-틴 전국회원대회가 'Y-틴, 역사 속 진실에 답하다'라는 주제로 8월 6일(월)부터 7일(화)까지 1박2일간 대전청소년위캔센터와 청소년수련마을에서 열렸다. Y-틴 회원과 실무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로체험 프로그램 '꿈을JOB아라', 성평등교육 '일상을 바꾸는 성인지', 지역별 활동보고, 장기자랑, 역사UCC 공모전, 역사미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히로시마 평화순례

일본YWCA는 동아시아 평화구축 비전과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젊은 청년 지도력을 양성하기 위해 해마다 '히로시마 평화순례'를 열고 있다. 올해는 8월 9일(목)부터 12일(일)까지 히로시마에서 '당신은 정말 히로시마를 알고 있나요?'라는 주제로 열렸다. 한국YWCA에서는 Y-틴 전국협의회 총무 이태인(대구YWCA), 서부협



의회 회장 홍다은(순천YWCA), 연합회 천유란 간사가 참석했다. 한국YWCA 청소년 회원들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진정한 평화구축에 청소년·청년들이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청년기자단 4기 오리엔테이션



청년의 눈으로 YWCA 콘텐츠를 만드는 한국YWCA 청년기자단 4기 오리엔테이션과 제1차 정기모임이 7월 21일(토)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YWCA 청년활동 홍보를 위해 모인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소통국원 4명과 일반 대학생 5명, 청년 홍보출판위원인 멘토 1명으로 구성된 4기는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김민주 홍보출판위원회 청년위원의 '눈길을 사로잡는 SNS 콘텐츠' 강의 듣고 앞으로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제4차 길위의 평화포럼

제4차 길위의 평화포럼이 7월 19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회원YWCA 참가자, 청년회원, 탈북민으로 구성된 평화포럼단과 연합회 위원, 실무활동가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우택 연세대 교수가 '평화협정과 평화의 사람들'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제5차 길위의 평화포럼은 9월 13일(목) 손성현 목사가 '한반도 분단체제 극



복을 위한 평화교육'을 주제로 강의한다.

북한어린이돕기 분유 전달

YWCA 북한어린이돕기 분유 432통이 8월 10일(금) 중국과 북한 육로를 통해 전달됐다. 평안북도 탁아소,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 아동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북한 어린이돕기 분유는 현재 격월로 해외동포 단체를 통해 북측에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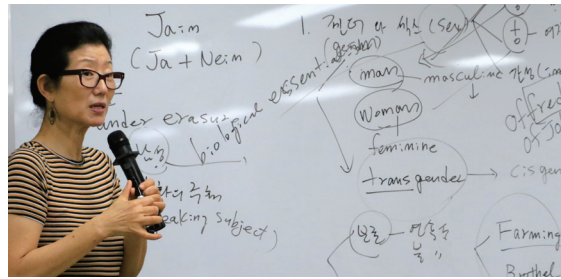
제1차 글로벌이슈 스터디포럼



YWCA 활동가와 청년의 글로벌리더십 개발과 국제시민 양성을 위한 제1차 글로벌이슈 스터디포럼이 7월 30일(월)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난민문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한국사회와 난민, 난민제도'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연합회 국제협력위원인 장운재 이화여대 교수가 '초대와 환대: 성서 속의 난민'을 강연했다. 질의응답과 토론도 진행됐다.

'젠더와 종교' 실무활동가 특강

강남순 미국 텍사스크리스천대학교 브라이트신학대학원 교수의 YWCA 실무활동가 특별강연이 7월 2일(월)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젠더와 종교'를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에서 참석자들은 차별과 배제의 종교로부터 예수 정신인 '연민' '사랑' '환대'를 실천하는 종교로 나



아가는 YWCA가 될 것을 다짐했다.

경기지역 회원대회



4년마다 열리는 지역 회원대회가 경기지역을 시작으로 잇따라 열린다. YWCA 경기지역협의회는 7월 17일(화) 안양 연성대학교 연곡문화센터에서 회원 5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YWCA 경기지역 회원대회를 열었다.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 세상'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원대회는 개회예배와 개회식, 주제강연에 이어 성평등운동을 결의하는 다짐한마당과 YWCA 활동을 퍼포먼스로 보여준 나눔한마당으로 진행됐다. 안양시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인 김윤 목사가 '십자가의 전달자'를 주제로 설교했으며, 김홍미리 여성주의 연구활동가가 '모두가 행복한 정치의 장으로 성(sexuality) 초대하기' 강연을 했다.

핵발전소 안전관리 개혁 촉구



YWCA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7월 4일(수) 부실한 핵발전소 안전관리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핵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기자회견'을 서울 세종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열었다. 6월 27일 감사원이 발표한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의 15가지 위법사항을 알리고,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미달한 핵발전소의 가동중단과 조기폐쇄 등 근본적 문제 해결도 촉구했다.

라텍스 방사능오염 실태조사 촉구



생활 속 방사능 제품의 실태가 잇따라 드러나는 가운데 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 등에서 대진침대를 능가하는 라돈이 검출되고 있다. YWCA를 포함한 라텍스사용자모임,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7월 12일(목) '라텍스 방사능 오염실태조사 발표 및 정부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사능 관리 사각지대인 라텍스 제품 라돈 검출 실태조사와 건강피해 역학조사 실행을 촉구했다.

2018 양성평등주간 표창



2018년 양성평등주간(7월 1일~7일)을 맞아 제23회 기념식이 7월 5일(목)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평등을 일상으로!'를 주제로 열렸다. 성차별과 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해온 여성·시민단체,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여성인권 향상에 힘쓴 활동가를 비롯한 유공자 등 63명이 표창을 받았다. 전소영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단 회원은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창립자 김필레 선생 추모예배



YWCA 창립자이자 여성교육 선구자인 김필레 선생 제35주기 추모예배가 7월 11일(수) 정신여중·고 김마리아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박혜성 정신여중 교장의 사회로 진행된 추모예배에서 김인혜 정신여중 교목실장이 '살아나게 하라'를 주제로 설교했고, 김필레리더십캠프 참가 학생들이 '내가 만난 김필레 선생님'을 발표했다. 김필레선생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추모예배는 정신여중·고 학생과 동문회, 한국YWCA연합회 주관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다.

1922장학금 모금바자회



한국YWCA연합회가 청소년, 청년 양성을 위해 95주년 기념사업으로 신설한 1922장학금 모금을 위한 바자회가 8월 31일(금)부터 9월 1일(토)까지 이틀간 한국YWCA 회관 1층에서 열린다. 여성의류업체 바로크상사에서 모금과 배분 전문기관인 (재)바보의 나눔에 전달한 여성의류 4,500여점을 기증받아 판매한다. 판매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연합회 소식

신간 안내



영성과 음악 이천진

찬송가 98장과 203장의 작곡자인 이천진 한양대학교 교목실장이 <영성과 음악>을 펴냈다. 그는 인간이 어떻게 신(神)을 만날 수 있는가를 묻는다. 인간의 과제 중 하나는 신을 만나는 것이고, 그 통로 중 하나는 음악이라고 강조한다. 신이 우주를 창조했고, 음악은 신에서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스바냐 3장 17절)를 인용하면서 "최초로 노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고 음악은 신을 만나는 영성"이라고 말한다.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의 음악이론을 비롯해 유대인들의 찬송, 그레고리오 성가, 루터교회 찬송가 '코랄', 2세기 찬송가와 더불어 영성으로서 한국음악을 분석하고 있다.

나눔사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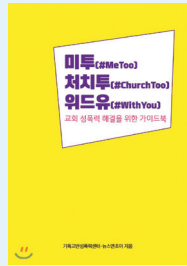


부르고 싶은 자장가

자넷 재프 외, 정혜련 옮김

건강한임양가정지원센터 연구소장인 한국YWCA연합회 Y-티위원회 정혜련 위원이 난임 가정의 치유와 성장을 위한 이야기 가득 담은 책을 번역했다. 난임으로 트라우마와 상실을 겪은 부부의 관계변화에 대처하는 방법과 난임 치료, 불임 후 출산이나 입양 등 재생산을 다루고 있다.

노랑박스 15,000원



미투 처치투 위드유

기독교반성폭력센터 외

2018년 7월 삼일교회와 교회개혁실천연대가 개소한 '기독교반성폭력센터'와 개신교 독립언론 '뉴스앤조이'가 공동으로 교회 성폭력 해결을 위한 가이드북을 펴냈다. 교회 안에 발생한 성폭력을 피해자와 교회가 해결할 때 참고할 내용과 안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을 담았다.

뉴스앤조이 8,000원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2018.6.1~7.31)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CMS기부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곽지영, 구정혜, 국윤택, 권순복, 권진, 김가현, 김경숙, 김경희, 김근혜, 김기동, 김명희, 김미경, 김병호, 김상은, 김선형, 김수연, 김수진, 김애련, 김영자, 김영현, 김은경, 김은영, 김일곤,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태연, 남희숙, 명진숙, 문권희, 문미란,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박미선,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옥, 박은실, 박인희, 박진화, 박효정, 배인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솔, 배한울, 백혜진, 서은미, 손서정, 손정원, 송록희, 신명자, 신인숙, 심은옥, 안은화, 안정희, 양영심, 양종원, 엄세현, 엄효정, 오소영, 오시창, 오영란, 원영희, 유도희, 유빈, 유성희, 유수, 윤영선, 윤수정,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민정,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윤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종임, 이주영, 이찬형, 이천진, 이항자,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임향옥, 장미란, 장선희, 전배자, 전정미, 전혜예, 정경란, 정동신, 정지유,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차경애, 채정희, 천유란, 최수선, 최지영, 최현선, 하은경, 한영수, 한주경, 한혜경, 홍기자, 홍현정, 황홍백	3,720,000
개인 기부	임국이, 임희옥, 전현숙, 최혜실, 거리캠페인 모금	808,570
회원YWCA, 부속시설	동해YWCA, 창원YWCA 어린이집	371,420
협력교회	기쁜소식교회, 정동제일교회, 약전평강교회, 하늘가족교회, 한양대학교교회 여성교회	4,113,210
기관, 단체	마포구청 선교신우회, NH농협은행(명동지점), 레오나다스, 르방(명동성당점), 에세레렐라또(명동점), 전광수 Coffee House(명동성당점), 해피빈	141,620
합계		9,154,820

YWCA 1922장학금 모금현황

(2018.6.1~7.31)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회원YWCA	대구YWCA, 부산YWCA, 세종YWCA	1,480,000
개인	강수정, 김난주, 김미애, 김재우, 김찬호, 김현지, 김형, 박설경, 박정원, 변정은, 소혜진, 송은희, 신미희, 신선경, 유현정, 최윤정 ※ 2017년 약정자 중 2018년도 6~7월분 완납자 김경희, 김순보, 김영숙, 김정순, 김지숙, 김현미, 김현숙, 김효성, 나순복, 문종숙, 박소현, 박애경, 백수경, 서효중, 신선, 신성의, 양선희, 영현경, 우승현, 이강순, 이경순, 이원희, 이정희, 전영지, 정선덕, 정은경, 정은영, 정하나, 조혜숙, 최수경, 최태화, 최현자, 하정화, 하행여, 한혜영, 홍성실, 황성연	530,000
합계		2,010,000

회원YWCA 소식

경기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고양여성영화제 #MeToo #WithYou



고양시가 후원하고 고양YWCA가 주최한 제8회 고양여성영화제가 7월 2일(월)부터 6일(금)까지 5개 영화관에서 9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Me Too #With You'를 주제로 여성 차별과 폭력을 담은 영화 22편을 상영했으며 감독과의 대화, 토크콘서트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광명YWCA

박문경 사무총장

회원운동 발대식



광명YWCA는 6월 11일(월) 회원운동 발대식을 열어 회원 성장과 지도력 발굴로 지역사회를 바꾸는 시민사회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하고, YWCA 앞에서 시민 대상으로 홍보캠페인을 벌였다.

남양주YWCA

이종은 팀장

창립 22주년 기념예배

남양주YWCA는 창립 22주년을 맞아 7월 5일(목) 교육장에서 기념예배를 진행했다.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펼친 이교현 목사가 '영혼의 그늘 YWCA' 설교를 통해 22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화합하고 도전하는 YWCA가 되길 당부했다. 남양주YWCA는 1996년 7월 8일 창립했다.



부천YWCA

김은아 팀장

여성 정치참여 확대방안 토론회



부천YWCA는 부천시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7월 4일(수) 북사골문화센터에서 경기여성연대와 함께 '부천시 여성 정치참여 확대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민선7기 지방선거에 도전한 여성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고하고, 앞으로 과제를 놓고 여성의원들과 시민모니터링단이 토론회를 벌였다.

성남YWCA

김경진 간사

톡소리 나는 여성직업인 경제교육



성남YWCA는 6월 21일(목) 돌봄과살림협동조합에서 활동하는 산모·살림 돌보미 60명을 대상으로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기초교육 '톡소리 나는 여성직업인 경제교육'을 진행했다. 수도권 경제교육센터 서희승 강사가 국민연금, 금융상품 등 노후설계를 통한 연령별 노후준비 방법을 강의했다.

회원YWCA 소식

수원YWCA

정혜진 주임

수원전산여고 '씽크잡스'



수원YWCA는 7월 10일(화) 수원전산여자고등학교 청소년 23명을 대상으로 씽크잡스(Think Jobs) 오픈닝 프로그램인 '나의 진로와 직업을 생각한다'를 진행했다. 여성 청소년들의 정보통신기술 능력개발과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10월까지 진행되는 씽크잡스는 한국씨티은행 후원으로 YWCA가 주관하는 여성청소년 직업기술 교육이다.

안산YWCA

문성은 주임

발달장애청소년 전통규방공예 전시회



안산YWCA 여성과 성상담소는 6월 26일(화)부터 29일(금)까지 발달장애청소년들의 전통규방공예 작품전시회 '한땀한땀 꿈을 뜨다'를 화사랑 갤러리에서 열었다. 발달장애청소년 진로직업자립 프로그램인 '한땀한땀 키움학교'는 일상생활 능력, 자기관리, 사회기술 교육 등으로 자립을 돕는 '키움학교'와 전통규방공예 기술을 배우며 경제자립을 도모하는 '한땀한땀'으로 구성되며 아산사회복지재단이 후원한다.

안양YWCA

홍미영 간사

지방선거 여성의원 당선자 간담회

안양YWCA는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안양여성연대가 6월 27일(수) 안양시의회에서 주최한 '여성의원 당선자와 안양여성단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박동순 안양YWCA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지방선거 평가를 겸해 열렸으며 성주류화 정책확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11명의 여성의원(55%)이 당선된 안양시의회는 최초의 여성의원 배출 등 성인지 의회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의정부YWCA

박성희 간사

성평등 한여름 밤에 담다



의정부YWCA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7월 5일(목) 가능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평등 한여름 밤에 담다'를 열었다. 가족영화 상영, 다양한 체험활동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120여명이 참석했다. 성평등 단어 보물찾기, 성평등 동화책 읽기, 아동성범죄 예방캠페인, 3D 가족열쇠 만들기 등 체험활동은 일상의 가족간 성평등 문제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파주YWCA

이순길 간사

사랑나눔 콘서트



파주YWCA는 7월 5일(목) 운정행복센터 대공연장에서 사랑나눔 콘서트를 열었다. YWCA 활동을 알리고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마련된 이번 콘서트에는 팝페라 듀오 스칼라(Scala)와 전자바이올린 연주자 그레이스(Grace)가 출연했다. 윤후덕 국회의원, 최중환 시장, 손배찬·목진혁·한양수 시의원을 비롯해 기관단체장, 파주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 회원 등이 참석했다.

동부

거제YWCA

심은옥 간사

대학 동아리 MT



거제대YWCA는 7월 6일(금)부터 7일(토)까지 와현해변 펜션에서 1박2일간 여름MT를 진행했다. 김덕희 회장 등 7명의 회원이 참석해 상반기 활동보고, 하반기 일정공유와 함께 친목을 다졌다. 김의향 거제YWCA 사무총장과 양승주 거제대학교 교수가 격려방문해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대학 동아리인 거제대YWCA에는 15명의 청년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김해YWCA

배정숙 부장

'우리 아빠는 셰프' 경연대회



김해YWCA는 7월 7일(토) '우리 아빠는 셰프' 요리 경연대회를 회관에서 열었다. 이보다 앞서 6월 23일(토)에는

'우리 아빠는 냉장고 정리 수납대장' 주제의 정리수납 강의와 실습을 진행했다. 12개팀이 참가한 요리경연대회는 아빠가 만드는 새로운 요리에 가정이 함께하는 식사시간까지 곁들여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대구YWCA

배민희 간사

'Y 역사 속으로' 현장탐방 연수



창립 95년을 맞은 대구YWCA는 100주년 비전 모색을 위한 'YWCA 역사 뿌리 찾기' 연수를 진행했다. 실무활동가들은 4개팀으로 나뉘어 서울 양화진 역사공원과 서대문형무소에서 기독교정신을, 이화여대와 정동교회에서 초기 여성사를, YWCA가 농촌으로 파견한 여성독립운동가 최용신의 삶에서 YWCA 정신을, 일본 후쿠오카YWCA를 방문해 YWCA 역사를 각각 조명했다.

마산YWCA

박주옥 부장

함께해요, #With You



마산YWCA는 7월 6일(금) 2018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이 열린 경남도청에서 양성평등 문화마당 행사로 '함께해요, #With You'를 진행했다.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이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기념식 부대행사로 마련한 문화마당은 토크콘서트, 세미나, 공모전시회, 캠페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됐다. 마산YWCA는 대강당 입구에서 양성평등 버킷 챌린지, 포토존 등 양성평등 체험관을 운영했다.

회원YWCA 소식

부산YWCA

김예은 간사

창립 72주년 감사예배



부산YWCA는 7월 3일(화) 회관 일한실에서 창립 72주년 감사예배를 열었다. 신충우 부산진교회 담임목사의 설교와 부산YWCA합창단의 특별찬양, 회원의 난타공연으로 진행됐으며 이사, 위원, 회원이 함께 모여 지난 72년을 돌아보고, 100년을 향한 소망을 다짐했다.

사천YWCA

정희경 간사

건강한 먹거리 현장체험



사천YWCA 소비자상담실은 6월 22일(금) 가나안목장에서 이사, 위원, 회원이 참석해 치즈와 피자 만들기 체험을 했다. 가공하지 않은 신선한 재료로 치즈와 피자를 직접 만들어 시식하고, 건강한 먹거리로 올바른 소비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양산YWCA

정은정 간사

회원증모대회

양산YWCA는 6월 12일(화) 2018 회원증모대회를 열었다. 1부 개최예배에 이어 2부 발대식은 박해숙 회원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회원 1,200명 확보를 목표로 세운 이번 대회에서는 회원증모대회를 구성하고 대대별 특성에 맞게 증모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울산YWCA

김다혜 간사

제36회 창립 기념예배



제36회 창립일을 맞아 울산YWCA는 6월 11일(금) 강당에서 기념예배를 열었다. 서정순 회장의 축하인사를 시작으로 참석자들이 서로를 격려하는 묵수건을 묶어주고, 돌봄과 나눔의 가치를 세우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기관들에게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YWCA 1922장학금 수여식, 청소년육성 유공자 포상, 기념떡 커팅으로 마무리했다.

진주YWCA

김태진 팀장

'이주민 역량강화' 사회공헌 협약



진주YWCA는 6월 26일(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업단지처와 이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공헌사업 협약을 맺었다. '多價値(다같이) All Together'라는 이름으

로 진행되는 두 기관의 협약은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우리는 모두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어요'를 주제로 12월까지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LH 토지구택박물관 관람, 키다리 문화체험 활동, 다문화 축제 맘프(MAMF) 탐방 등을 진행한다.

진해YWCA

박중순 간사

아금바리 장학금 마련 일일찻집



진해YWCA는 6월 8일(금) 진해파크엘 컨벤션에서 취약계층 장학금 마련을 위한 일일찻집 행사를 열었다. 김옥남 이사가 장소제공을 포함한 찻집비용 전체를 후원했으며, 재능기부 작은 음악회와 재활용가구를 이용한 자원봉사자들의 아금바리 리폼교실 작품기부로 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6·13 지방선거 기간을 맞아 YWCA 정책제안과 함께 유권자운동도 홍보했다.

창원YWCA

김진아 간사

창립 29주년 기념예배



창원YWCA는 창립 29주년을 맞아 기념예배와 '하하호호 토크토크'를 6월 27일(수) 회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회관에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도약하고 전진하는 여성들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창원YWCA 현재를 진단하고, 내년 30주년을 준비하며 YWCA에 희망사항을 나누었다.

통영YWCA

변은실 간사

제1회 마을캠페인

통영YWCA는 6월 21일(목) 광도면 내죽도공원에서 제



1회 마을캠페인을 진행했다. 마을캠페인은 YWCA 탈핵 생명운동, 성평등운동, 소비자운동을 시민들과 소통하며 마을부터 시작해 통영시 전역으로 확산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탈핵 배지와 방향제 만들기, 양성평등 비누 만들기, 양성평등 설문조사, 이동소비자상담실을 운영했다. 탈핵 에너지전환, 에너지자립 촉구 캠페인도 벌였다.

포항YWCA

김수영 간사

노인 쿠킹클래스 문화활동



포항YWCA가 7월 3일(화)부터 25일(수)까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320명을 대상으로 쿠킹클래스 문화활동을 진행했다. 11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문화활동에서 참가자들은 직접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지난해는 80명이 참여해 노래교실, 만들기 체험 등의 문화활동을 했다.

북부

강릉YWCA

이신애 부장

사랑의 씨!씨!씨!

강릉YWCA는 해마다 위원회별로 요양원이나 마을회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이 웃고 움직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씨!씨!씨!'를 진행하고 있다. 7월 2일(월)에는 가족복지위원회가 강동면 안인 노인회관을 찾아 어르신들과 노래를 부르고, 얼굴 마스크팩과 손톱 메니큐어 바르기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사랑의 씨!씨!씨!'는 1년에 여섯 번 진행된다.

회원YWCA 소식

동해YWCA

허순희 간사

회원 만남의 날



동해YWCA는 회원들이 친밀감을 형성하고, 친환경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회원 만남의 날'을 열고 있다. 6월 27일(수)에는 대안 생리대 만들기, 7월 4일(수)에는 친환경 먹거리 만들기, 7월 11일(수)에는 휴대용 파우치를 각각 만들며 생활 속 친환경운동 실천을 다짐했다. 참여 회원에게는 EM용액을 나누었다.

서울YWCA

성지희 간사

SNS기자단 발대식



서울YWCA는 6월 26일(화) 이사실에서 'SNS기자단 1기' 발대식을 열었다. 청소년, 대학생, 청년, 파워블로거 등으로 구성된 SNS기자단은 온라인 콘텐츠로 서울YWCA 소식과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1기는 12월까지 활동하며 봉사활동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속초YWCA

주미란 간사

웰다잉 강사 양성교육

속초YWCA는 5월 28일(월)부터 7월 16일(월)까지 매주 월요일 강당에서 노·사·민·정과 함께하는 경력단절 여성 취업상담 프로그램 웰다잉 강사 양성교육을 8회에 걸쳐 진행했다. 22명의 경력단절 여성이 참여해 19명이 수료했다. 이들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마무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준비를 전파하는 웰다잉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원주YWCA

진정희 간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



원주YWCA는 7월 23일(월) 강당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을 열고, 원일로 농협 앞에서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자는 홍보전단을 배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 유해업소 모니터링과 계도활동, 청소년보호 캠페인, 지역사회 봉사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인천YWCA

유성은 간사

인천YWCA합창단 제19회 정기연주회



6월 26(화)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YWCA합창단 제19회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조현경 지휘자가 이끄는 인천YWCA합창단은 '차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 육성'을 슬로건으로 걸고 1부 소망, 2부 사

랑, 3부 믿음의 주제로 무대를 꾸몄다. 가야금, 플루트, 피아노로 색다른 퓨전음악을 선보인 클로스오버양상블 칼트리오(CAL TRIO)와 영화초등학교 엘피스합창단도 함께했다.

춘천YWCA

경소희 간사

테라리움 만들기 특강



춘천YWCA는 7월 10일(화) 회원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원에 기초상식을 배우는 '테라리움 만들기' 특강을 열었다. Terra(땅)와 Arium(용기)이 합쳐진 테라리움은 투명한 유리용기 속에 배수층을 만들고 용토를 채워 식물을 키우는 '작은 정원'을 말한다. 회원들은 공기정화 효과가 뛰어난 다육식물을 활용해 테라리움 미니정원을 만들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시간을 보냈다.

서부

광양YWCA

이현숙 간사

자원활동가 간담회



6월 22일(금) 광양YWCA 무료급식소에서 재가복지 도시락배달 자원활동가 20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광양YWCA는 봉사과정의 애로사항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살피는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등을 나누며 소통과 감사, 격려의 시간을 보냈다. 자원활동가들은 매주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재가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도시락을 준비하고 배달하는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광주YWCA

손유영 부장

조아라 명예회장 15주기 추모식



故 조아라 명예회장 15주기를 맞아 고인의 뜻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추모예배와 기념강연이 7월 6일(금) 소심당 조아라기념관 2층 다목적실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흥진 호남신학대학교 총장의 설교와 박석무 전 국회의원 강연을 통해 인권운동가이자 민주운동가로서 조아라 선생의 삶과 활동을 재조명했다.

남원YWCA

김미정 간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교육



남원YWCA는 6월 19일(화)과 21일(목)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시민 모두를 위한 도시와 안전이 보장되는 지역문화를 만들기 위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양성평등 교육을 진행했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위한 다양한 제안이 지역정책에 반영, 실현될 수 있도록 서포터즈의 활발한 모니터링 활동을 기대해 본다.

목포YWCA

곽수현 국장

'기독교여성주의와 성평등운동' 직원교육

7월 20일(금) 강당에서 전체 직원교육을 진행했다. 이숙진 이화여대 교수의 '기독교여성주의와 YWCA 성평등운동' 강의를 통해 직원들의 젠더 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의

회원YWCA 소식



식을 향상했다. 목포YWCA는 한국YWCA가 2018-2019년 운동정책으로 채택한 탈핵생명운동, 성평등운동, 평화통일운동, 청소년운동을 지역 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펼치고 있다.

서귀포YWCA

김수진 간사

평화아카데미 개강



6월 27일(수) 서귀포YWCA 회관에서 수강생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 평화아카데미 서귀포시 지역운영을 개강했다. 첫 강좌로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 서울고대 연구교수가 '평화감성 찾기-남북 문화교류 토크&콘서트'를 주제로 강연했다. 평화아카데미는 매달 강연을 진행해 11월까지 모두 7개 강연과 해외 평화현장 탐방으로 운영된다.

순천YWCA

신현아 간사

Y-틴 나눔장터



순천YWCA는 6월 2일(토) 금당 버드네공원에서 열린 나

눔장터에 Y-틴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22명이 참여했다. 나눔장터는 시민들이 재사용이나 미사용 물품 등을 판매해 기금을 마련하는 베풀시장이다. Y-틴 청소년들은 5월 동아리 모임에서 직접 만든 EM비누를 판매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EM제품도 홍보했다. 이번 수익금은 Y-틴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기금으로 쓸 예정이다.

여수YWCA

주장미 간사

영화로 만나는 #Me Too, With You



여수YWCA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7월 3일(화) 진남문 예회관에서 시민들의 인식변화의 양성평등 문화정착을 위한 기념행사 '영화로 만나는 #Me Too, With you'를 열었다. 1부에서는 성추행과 트라우마를 다룬 여성영화 '끔찍하게 정상적인'을 상영했고, 2부에서는 '미투 화요 집회'를 열었다. 상록수밴드의 노래공연, 시민과 함께하는 플래시몹, 2분 발언 등이 이어졌다.

익산YWCA

홍진 간사

양성평등 촉진 캠페인



익산YWCA가 주관하는 익산여성네트워크 포럼은 7월 21일(토) 이마트 앞에서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익산여성네트워크 포럼단을 비롯해 익산YWCA 이사, 키다리학교 단원, Y-틴 회원들이 참석했다. 익산여성네트워크 포럼은 시민들의 성인지 역량 강화, 여성주의 소통과 연대, 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전주YWCA

김은진 국장

성평등 특강, 토크콘서트



전주YWCA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전북YWCA협의회와 함께 7월 6일(금) 중부비전센터에서 '평등한 성, 편편한 두 번째 이야기'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미국 최초로 직장 내 성폭력 승소사건을 다룬 '노스컨츄리' 영화상영과 함께 이야기 토크를 진행했다. 7월 4일(수)에는 전주YWCA 50주년 기념 시민강좌로 이숙진 이화여대 교수의 '함께 행복한 성평등' 특강을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열었다.

제주YWCA

하지현 간사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제주YWCA 통합상담소는 6월 25일(월)부터 7월 13일(금)까지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교육내용은 상담원 자질을 비롯해 여성, 청소년, 노인, 이주여성, 장애인 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과 보호에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기법, 치료·상담기법, 폭력관련 법률, 집단상담 실습 등으로 구성되었다. 수료생들은 가정폭력 전문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중부

논산YWCA

이수정 간사

양성평등주간 영화특강

논산YWCA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7월 3일(화) 논산문화원 다목적홀에서 '너남 쌤쌤'이란 주제로 방미나 나우 영화치료연구소장의 '영화 속 그들은 어떻게 평등한가'



영화특강을 진행했다. 이사, 회원, 시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와즈다' '쓰리빌보드' 등 영화 3편을 통해 영화 속에서 여성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양성평등 가치를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대전YWCA

안소진 간사

'임금격차 해소방안' 대전여성포럼



대전YWCA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7월 5일(목) 회관에서 '실질적인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23회 대전여성포럼을 열었다. 유덕순 사무총장의 사회로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 강은혜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주혜진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이주영 한국YWCA연합회 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여성의 저임금, 차별임금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공정한 임금 실현방안을 모색했다.

세종YWCA

김영옥 간사

웰다잉연구회 활동



세종YWCA 동아리 웰다잉연구회는 4월부터 한마음효병원 & 요셉의 집에서 '웰빙 행복한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죽음을 이해하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볼 수 있도록 돕는 이

회원YWCA 소식

번 프로그램은 10월까지 계속된다. 웰다잉연구회는 세종YWCA가 2016년부터 시작한 웰다잉 전문강사교육 이수자를 중심으로 올해 1월 발족했다.

제천YWCA

김미경 팀장

에너지 절약 인형극



7월 3일(화) 리라유치원을 시작으로 에너지절약 창작인형극 '나는 에너지 절약 대장'을 통한 어린이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쉽게 이해시키고 아동기부터 실천할 수 있게 인형극을 기획한 제천YWCA는 지역극단 '겨자씨 친구들'과 함께 7개 유치원과 어린이집 280명을 대상으로 월 2~3회씩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천안YWCA

정상란 팀장

에너지자립 체험공간 운영



천안YWCA는 6월부터 탈핵과 에너지자립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 동참하는 주민을 위한 체험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생명사랑공동체관에 마련된 체험공간에서는 자가발전 자전거를 이용한 핸드폰 충전, 믹서기로 음료 만들기, 전구 켜기와 더불어 태양열 조리기를 이용해보고 EM활성액도 만들 수 있다. 생명사랑공동체관 수강생들과 청소년에코캠페인 참석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청주YWCA

김광식 간사

창립 53주년 기념예배

청주YWCA 53주년 창립 기념예배가 7월 11일(수) 회관에서 열렸다. 김종성 청주남교회 목사의 설교로 진행된 1부 예배에 이어 2부 모두의 한마당에서는 세대별 '세상을 바꾸는 3분, 평화통일'을 발표하고 '연대하며 행동하



는 여성들 #Me Too 운동과 청주Y'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충주YWCA

이예림 간사

한마음가족 체육대회



충주YWCA는 6월 16일(토) 충주시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이 함께하는 한마음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140여명의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은 다양한 경기를 통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함으로써 다문화를 이해하고 배려의 가치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직할지부

군산직할지부

오미영 간사

제3회 양성평등영화제



군산직할지부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7월 3일(화)부터 5일(목)까지 대강의실과 옥상에서 '#Me Too #With You'를 주제로 제3회 양성평등영화제를 열었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성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영화제에서는 '아이 캔스피크' '노리게' '한공주' '스포츠라이트' 4편이 상영됐다. 특히 맞벌이 가정과 아이들의 편안한 관람을 위해 저녁 야외상영을 준비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2018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賞 제22회

제22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상 추천을 받습니다

- 내용**
-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잘 표현한 프로그램
 - 여성인권 보호와 성평등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한 프로그램
 - 인간과 자연환경의 공존을 모색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높인 프로그램
 - 남북통일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평화가치 구현에 기여한 프로그램
 - 청소년, 청년의 건강한 가치관 정립에 이바지한 프로그램

- 대상**
-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케이블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프로그램
 -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방영된 프로그램 (※ 2018년 8월 31일까지 전체 분량의 2/3 이상 방영된 프로그램 포함)
 - 보도, 다큐멘터리, 드라마, 예능 등 모든 장르

시상

구분	편수	상금	
대상	1편	100만원	
부분상	성평등	1편	70만원
	생명	1편	70만원
	평화	1편	70만원
특별상	1편	70만원	
전국 YWCA 활동가들이 뽑은 좋은 프로그램	1편	70만원	

기간 2018년 9월 28일(금)까지

- 방법**
- 추천서(홈페이지 내려받기) 작성하여 우편, 팩스, 이메일 중 선택 발송
 - 우편: (우)04538 서울시 중구 명동길 73 한국YWCA연합회 (도착일 기준)
 - 팩스: (02) 774-9724
 - 이메일: ywcapr@hanmail.net

- 발표**
- 심사: 서류심사, 영상물 심사, 종합심사
 - 발표: 1차 10월 22일경, 2차 11월 2일경(개별연락)
 - 시상: 2018년 11월 22일(목) 오후 2시, YWCA 강당

문의 ● 홍보출판팀 (02) 774-0230 ywcapr@hanmail.net

